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3 1

VOL. 199

haninnewsinni@gmail.com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Selamat Tahun Baru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T. JAMES

도자기 역사를 새로 쓰다

친환경도자기 한국세라믹

대한민국 신기술으뜸상

3년연속 대상 수상!!

2012년 수상 제품
신개념 도자기 식판
집에서도, 밖에서도 환경 호르몬 걱정없이 건강하게

세계 TOP 브랜드가 인정한 품질력
미국 LENOX, 독일 Villeroy&Boch, 미국의 MIKASA, 유럽의 iittala, 일본 Noritake등 세계 30여국에 수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2011년 수상 제품
도자기 칸막이 도시락
도시락으로 때론 밀폐용기로 칸막이가 있어 더욱 편리하게

세계 최초 도자기 밀폐용기 · 도시락 · 식판 탄생
세계 최대 최첨단 도자기 공장에서 젠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 도자기 기능성 제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2010년 수상 제품
대용량 김치 생생용기
4면 결착 완벽한 밀폐력으로 김치 맛은 더욱 싱싱하게

업계 최초 로하스 인증, 친환경도자기
영국, 독일, 뉴질랜드, 한국 등 최상급의 정제된 친환경 천연원료를 사용하여 환경호르몬 걱정없이 사용하는 친환경제품입니다

Hankook Ceramic

ZEN 젠한국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SHOWROOM Grand Indonesia Lt.2 Tel:021)2358-0600 Pondok Indah Mall Lt.3 Tel:021)7592-0615

Where dreams are made. A380

www.koreanair.com

대한항공 A380은 약속합니다

1.3 배 넓은 공간을

Duty Free

Showcase로 드리는 쇼핑의 즐거움을

bars

각종 칵테일이 제공되는 넓은 라운지 그리고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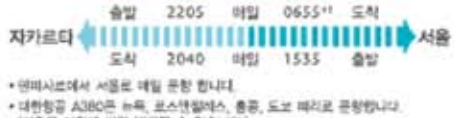
프레스티지 슬리퍼 시트가 드리는 럭셔리함을

comfort

경험하세요. 스케일의 차원이 다른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스케일. Korean Air A380

대한항공 A380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타 항공사의 A380 대비 가장 작은 좌석수로 1.3배 넓은 공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층 전 좌석 94석의 프레스티지 클래스로 한층 럭셔리한 분위기는 물론, 바 라운지, 항공사 최초로 도입하는 Duty Free Showcase는 비행의 즐거움까지 배가해드립니다. 좌석 수를 줄여 편안함의 가치는 높이고 더 가벼워진 동체로 환경까지 생각한 대한항공 A380 – 생각의 스케일까지 차원이 다릅니다.



• 인파시로에서 서울로 매일 운항 합니다.
• 대한항공 A380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홍콩, 도쿄 하리로 운항합니다.
(기종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자카르타: 62-21-521-2180

We Know Indonesia Better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즈 코리아
Garuda Orient Holidays Korea

GA 왕복항공권 (인천-자카르타)

	유효기간	CLS	비수기 10/1 ~ 11/30 2/27 ~ 3/31	평수기 12/1 ~ 12/21 2/1 ~ 2/26	성수기 12/22 ~ 1/31
이코노미	14일	B	660,000	760,000	840,000
	21일	Q	700,000	800,000	860,000
	1개월	N	720,000	840,000	880,000
	2개월	N	878,000	889,000	899,000
	3개월	K	899,000	910,000	921,000
	4개월	L	941,000	993,000	1,024,000
	6개월	M	1,066,000	1,150,000	1,255,000
	1년	Y	1,494,000	1,494,000	1,494,000
비즈니스	3개월	D	1,800,000	1,900,000	2,000,000
	6개월	D	2,100,000	2,200,000	2,300,000
	1년	C	2,496,400	2,496,400	2,496,000

¡ 할인 안내

학생할인: Y/M/L/K/N 에 한하여 20% 할인
* 단, 재학증명서 첨부 필수

경로우대할인: Y/ML/K/N에 한하여 20% 할인
* 단, 만 60세 이상 여권첨부 필수

이코노미 조기발권할인: 5% 할인
*단, 출발 45일 전 발권 시 적용

비즈니스조기발권할인: 5% 할인
*단, 출발 45일 전 발권 시 적용. D CLS only

Dream Holidays 자카르타 에어텔

Hotel	Room Type	Low 10.01-11.30 02.27-03.31	Shoulder 12.01-12.21 02.01-02.26	High 12.22-01.31	1박추가
		항공 + 호텔 2박			
The Batavia Hotel ★★★★	Superior	629,000	729,000	809,000	34,000
Aston Marina ★★★★	1 B/R Regular	669,000	769,000	849,000	54,000
The Sultan ★★★★★	Deluxe	719,000	819,000	899,000	79,000
Crowne Plaza ★★★★	Deluxe	729,000	829,000	909,000	83,000
Gran Melia ★★★★★	Deluxe	789,000	889,000	969,000	111,000
	Surcharge	USD 30 (Check-in: Mon, Tue, Wed, Thu)			
Mulia Senayan ★★★★★	Splendor	819,000	919,000	999,000	127,000

Dream Holidays (자카르타 스탑) 발리 에어텔

Hotel	Room Type	Low 10.01-11.30 02.27-03.31	Shoulder 12.01-12.21 02.01-02.26	High 12.22-01.31	1박추가
		항공 + 호텔 2박			
Lavender Luxury Resort ★★★☆ Kuta	Superior	669,000	749,000	839,000	31,000
	Surcharge	USD 10/Room/Night • 03.01 - 03.31			
The 101 ★★★★ Legian	Standard	709,000	789,000	879,000	51,000
The Patra Jasa ★★★★☆ Kuta	Deluxe	779,000	859,000	949,000	86,000
Courtyard Marriott ★★★★☆ Nusa Dua	Deluxe Garden	779,000	859,000	949,000	86,000
	Surcharge	USD 20/Room/Night • 02.09 - 02.16			
Melia Bali ★★★★★ Nusa Dua	Deluxe	819,000	899,000	989,000	104,000
Pullman Legian Nirwana ★★★★★ Legian	Deluxe	829,000	919,000	1,009,000	112,000
Intercontinental ★★★★★ Jimbaran	Resort Classic	889,000	969,000	1,059,000	137,000
	Singaraja	929,000	1,009,000	1,099,000	159,000
Conrad Bali ★★★★★☆ Nusa Dua	Deluxe Garden	909,000	989,000	1,079,000	147,000
	Deluxe Resort	929,000	1,009,000	1,099,000	161,000

¡ 에어텔 공통사항

왕복 항공권 + 호텔 2박 및 조식이 포함된 에어텔 요금입니다. < 자카르타 에어텔: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 , (자카르타 스탑) 발리 에어텔: 인천-자카르타-발리-인천 왕복 항공권 >
추가 숙박은 1박 추가 요금 확인 바랍니다. / 유류할증료 및 인천공항세, 입국비자, 현지 공항세는 불포함입니다. / 2인 1실 기준 1인 요금이며, 1인 1실, 아동 등 기타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V Class 7일 항공권 기준이며, 항공권 연장 추가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지역간, 호텔간 결합이 가능하며, 별도 문의 바랍니다.

PRIME

Garuda Indonesia

Garuda Orient Holidays

¡ 예약 및 문의

PT. Prime Tour Jakarta 1F. Wisma Korindo, Jl. 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Indonesia
· T. +62 (0)21-7917-0316 · F. +62-(0)21-7917-0317

GOH Korea Seoul 서울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층 · T. +82-(0)2-3789-0831~4 · F. +82-(0)2-3789-0835

** Garuda Orient Holidays Korea(GOH Korea)는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의 여행브랜드입니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품질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동중 인도네시아는

1 20년간 축적된 기술로
포장용 비닐(Poly Bag) 및 **프린트**에 관한 완벽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 **Best Quality & Quick Delivery**를 최우선으로 귀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598-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Marketing Office E-mail
dji_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PT. HANINDOEXPRESS utama

SINCE 1993

2013 癸 巳 年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癸 巳 年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 소통으로 하나 되는 한인사회
* 나눔으로 축복 받는 한인사회
*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입니다

물류운송 & PROJECT CARGO 운송 전문업체
PT. HANINDOEXPRESS utama

GRANADI Building, 7th Floor South Wing
Jl. H.R. Rasuna Said Kav.8-9 Kuningan
Jakarta 12950 Indonesia

Tel: (62-21) 2525 123 (Hunting)
Fax: (62-21) 2520 551, 2520 556
e-mail: hanindo@hanindo.net
homepage : www.hanindoexpress.com

KMK GROUP

성공하는 기업보다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KMK GRUOP 은
HTM(Human Touch Management:사람 중심 경영)을
기업의 경영 이념으로 삼고,
사람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섬기며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후원해 주신 바이어, 협력업체,
그리고 모든 한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KMK GROUP 의 희망입니다.

INNOX

K1

K2

RCI

HTM (K5)

강 희 중
재 인도네시아한인회 부회장 (문화 예술분과 위원장)
세계무역인협회 인도네시아 지회장
화현갤러리 대표

더 먼 미래를 향해

- 박 정 자

어떤 이는 세월이 간다 하고 어떤 이는 사람이 간다 한다
어떤 이는 어제의 물에 다시는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경계가 무슨 의미인가 묻는다

그래도 새해는 우리 앞에서 열린다 우리는, 이 아침에
뜨거운 불덩이 하나 산 위에 올려놓는다
새 출발을 재촉하는 힘찬 고동소리를 듣는다
거기, 전 생애를 바쳐 넘어야 할 우리의 길이 길을 맞대고 있다

먼 이국땅에서 낯설고 절박하게 조상들이 다져놓은
이제는 굳건하게 뻗어나가는, 한인의 긍지를 그 후손들이
따르고 있다 더 먼 미래를 향해 더 뜨거운 새 날을 열고 있다

좋지 않으냐 세월이 간다고 해도 사람이 간다고 해도
좋지 않으냐 어제와 오늘이 늘 같다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세월이 되고 스스로 역사가 되고, 세월과 역사의
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새 날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계사년 밝은 새해

박정자 시인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회원
<그는 물가에 있다> 외 시집 6권 출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편집장 역임

2013년 신년사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을 맞이하여 ...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그 말만으로도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게 합니다.

계사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불사와 재생,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13년 새해는 새로운 희망과 충만하는 에너지로써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풍요가 넘쳐 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2013년은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힘찬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도네시아 동포 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신기엽 회장 체제의 출범으로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화목하고 번창하는 한인 사회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지난 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정치·안보, 경제·통상 및 투자, 방산, 문화·관광, 인적교류 협력 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착실하게 심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APEC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간의 회동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에도 아웃소싱, 최저임금 및 노사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 사회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단결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갖가지 문제와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사관은 우리 동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또한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날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는 가운데 앞으로의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조망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념 행사가 치루어질 예정인데, 우리 한인 사회가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어느 곳의 한인 사회보다도 건실하게 화합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의 한인 사회가 배려의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써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1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영선

2013년 신년사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희망의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이자 지난 12월19일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시작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의 터전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떠오르는 미래 비전을 가진 유망국가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ASEAN 한국대표부가 자카르타에 개소되고, 2030년에는 경제 규모가 세계 7위국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9년전 인도네시아를 개척하신 선친의 영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인연을 맺은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를 제2의 조국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제2대 한인회장을 역임하신 아버님,
제2대 부인회장을 지내신 어머님의 후광에 힘입어 제4대 한인회장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대를 이어 봉사하게 되니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1972년 발족하여 초대 최계월회장님, 2대 신교환회장님, 3대 승은호회장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 봉사해 주신 덕분으로 세계 제일의 모범적인 한인회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회 중 우리 한인 사회가 가장 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도네시아 법을 준수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학연,혈연,지연 모두 소중하겠지만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면서 맺은 인연은 특히 소중히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꾸고 만들어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 주고자 다음과 같이 동포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으로 더불어 하는 많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한인회에서는 '2013년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해'로 정하여 지역한인회와 함께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둘째, "소통으로 하나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각 분야별 자생단체인 지역한인회, 대한체육회, 민주평통, 월드옥타, 자유총연, 부인회, 청년회, 문예총, 코윈,
한-인니 문화연구원 등 각 분야 자생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저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이러한
다양한 단체들과 수평적 연대를 통해 소통하며 함께 발전하는 한인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위를 관심을 가지고 돌아 볼 때입니다. 한인회는 한국부인회 등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불우한 아이들의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어려움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2013년 새해에는 한인 동포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더불어 승리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새해 아침에
인도네시아 한인회 제4대 회장 신 기 엽

차 례

신년연하장<강희중>.....8

신년 축시<박정자>.....9

신년사<김영선>.....10

신년사<신기엽>.....12

인터뷰<신기엽>.....16

풍경과 사람<엄종한>.....19

인도네시아의 약용식물
/미냑 까유 뿌띠<백진엽>.....20

[연재기고]2013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신성철>.....22

[신년특집] 우표를 통해 본
한국의 미 총집합!.....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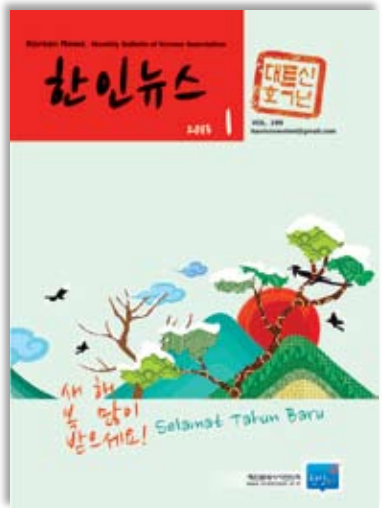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엽 배상



표지설명 ▷▶▷

새해를 맞는 고향의 모습입니다

레이아웃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안녕하십니까,
2013년 한인뉴스 신년호부터 편집을 맡게 된 홍성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새해가 추운 계절 속에서 맞는 것이 아니듯, 저도 따스한 기운 속에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한인뉴스 신년특대호>를 위해 함께 뛰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대와 관심에 힘입어 더욱 풍성한 <한인뉴스>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생각하고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1246
홍성영

이 달의 읽을거리

이모저모, 한인 사회 32

-제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마감 상황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첫 여성대통령 당선
-제 2차 한-인니 경영지원 교류회
-까리안댐 건설 감리 계약서 서명식
-환경부 '자카르타 젖줄' 칠리웅강 살리기 착수
-세계한민족네트워크 정기총회 및 송년회
-2012년 하반기 한인회 정기 이사회
-2013년 대사관하례식
-2012년 한국어 교육 워크샵
-문화협력을 위한 한류 세미나
-IT 훈련센터 개원식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브까시 지점 개점
-인도네시아 실업고와 재인니 한국기업간의 자매결연
-제 2회 New Artist Project 2012
-Patria Andromeda 1호 진수식
-한국부인회 17대 회장 박미례
-신간안내
-수교 훈장 광화장 수여
-제 2대회 인터넷 공모전 시상식 및 문화행사
-정무웅 코린도 장학재단 이사장
-JIKS, ACT 총회 참석

학생들의 정치 참여 <박용하>.....53

사랑의 불씨를 키우는 기업<김성월>.....54

<계사년 특집> 뱀.....57

속담으로 재미있게
<BAHASA INDONESIA> <박정자>.....60

한반도의 역사.....62

<연재> Jalan-Jalan Jakarta
/모나스로 잘 알려진 국립기념탑<사공경>.....64

행복에세이; 아름다운 생각,
행복한 삶 <서미숙>.....70

<연재>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부정부패범죄척결법<이승민>.....72

새해 달라지는 것들.....76

한,인니 문화 연구원.....79

'늙지 않는 뇌' 비결 10가지.....80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정착.....82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84

한인회 임원 찬조금.....87

생활정보.....89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있습니다***

interview
인터뷰

제4대 한인회장 신기엽

– 제4대 한인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2대 신교환 한인회장님이 아버님이시니까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이라는 영예와 큰 짐을 2대에 걸쳐 맡으시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아버님의 대를 이어 중책을 맡으니 감회가 남 다를 수 밖에 없지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 평소의 꿈이라 최선을 다하여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우리 한인회는 "신문고"를 설치, 운영하여 억울한 사람이나 기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인니에는 언제부터 정착하셨는지,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선친의 영에 따라 1976년8월 인도네시아에 와서 선친의 원목사업을 보좌하게 되었지요.

– 한인회와 관계는 언제부터 맺게 되셨습니까.

1986년 선친께서 제2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하여 지금까지 27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재인도네시아한인사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포가 대략 5만명으로 추산하고 그 중 4만명이 자카르타 일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 관광, 출장, 연수 등 단기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약 6만명의 동포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 2013년은 한-인니수교 40년을 맞는 해입니다. 많은 경축행사와 양국 교류가 예상되는데 한인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할 일이 많으시지요.

올해는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는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인회도 지역 한인회와 함께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2013년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해"로 정하여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행사를 많이 하려 합니다.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행사를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를 받아 함께 다양한 행사를 할 예정이고, 수시로 불우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돕는 행사도 병행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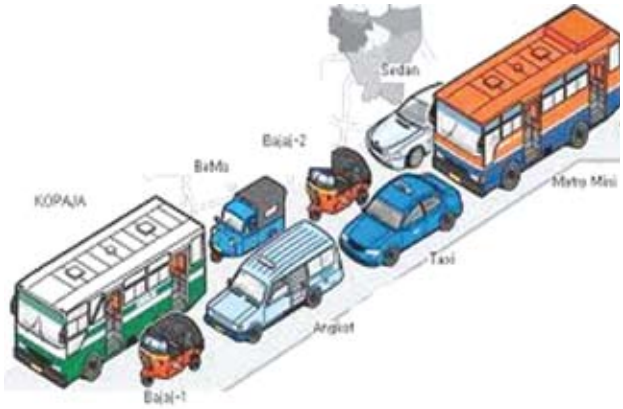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수교 40주년의 역사
○ 양국은 1973년 수교 이후 정치 · 경제 ·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왔으며, 특히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최근 양국관계 크게 심화 발전
–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10대 교역 파트너로서, 양국간 교역액은 2010년 최초로 200억 불 돌파
–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6번째 투자 대상국이며, 특히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가 최근 철강 · 유통 등 자본집약적 분야로 다변화되면서 양국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
– 양국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토대가 될 인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간 인적교류는 연 30만 명에 이르며, 인도네시아내 한국인 커뮤니티는 약 5만 명으로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를 형성
–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UN, G20, ASEAN+3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

○ 인도네시아는 주요 자원 보유국이자 우리의 주요 경협 대상국인 바, 양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배경으로 자원 · 에너지 분야 등 기존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방산, 저탄소 녹색성장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임 3년 동안 재인니한인사회를 위해 펼치고자 하시는 일이 많으실 듯합니다. 더욱이 한인사회가 급성장하면서 소외계층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어느 사회나 소외계층이 있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었는데 가족이나 친지에게서도 버림받아 아무도 도와 주는 사람이 없어 저희 한인회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나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과 불우한 아이들을 따뜻이 안아주고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참으로 축복받으며 성장해 온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연중내내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람들까지도 도와 줌으로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를 가꾸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 불우이웃돕기운동의 재원은 개인성금(가족당Rp300,000/년), 법인성금(법인당 Rp3,000,000/년) 으로 책정하고 별도 구좌로 관리하여 수시로 언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국 관계가 확대되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노사문제라든지 관계기관과의 협조 문제 등 현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한인회에는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금번 대기업과 업종별 협의회와 많은 한인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여 대폭 확대 개편되며 대사관과 함께 협력하여 제반 현안을 풀어 갈 것입니다.

– 어머님이신 고 송복순 여사께서 제2대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던 한국부인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한인회의 지원 계획도 별도로 갖고 계신지요.

한국부인회는 2013년부터 한인회 여성봉사위를 맡아 한인회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키로 하고 불우한 우리 한인동포 및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도우고 보살펴 따뜻한 한국인의 정을 심어 주는 등 많은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 지역한인회와 유기적인 관계도 고려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년 정기 이사회때 지역한인회장님들을 초청해 고충을 가져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접 방문도 하여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좀 더 나은 한인사회를 위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한인회는 지난 20여년간 승은호 회장님의 넘치는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 봉사해 주신 덕분으로 세계 제일의 모범적인 한인회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왔으며 우리 인도네시아 동포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인회의 명예회장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인회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봉사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시간봉사를 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한인회 활동을 알려 드리겠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올해는 한인사회의 수장으로써 새해를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즐기는 하루의 시작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 보세요. 기분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동포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넘치면 주위에 나누어 주는 축복받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2011년 1월호부터 2년동안 한인뉴스 편집장으로 한인사회의 대표적 소식지 <한인뉴스>를 열정을 품고 만들어오던 박정자편집장이 떠나게되었습니다.

2013년 1월호부터 홍석영씨를 새로운 편집장으로 맞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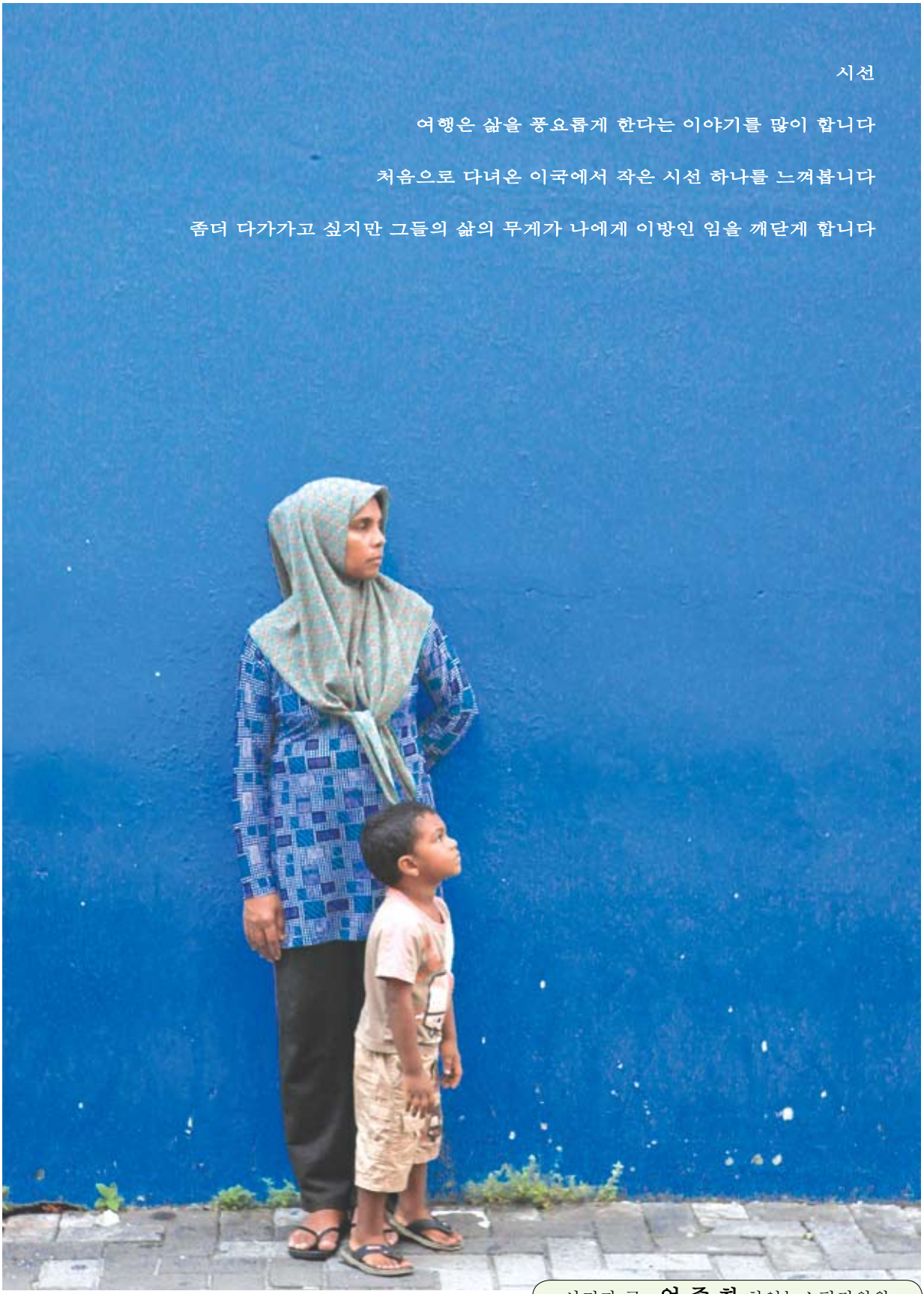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선

여행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으로 다녀온 이국에서 작은 시선 하나를 느껴봅니다

좀더 다가가고 싶지만 그들의 삶의 무게가 나에게 이방인 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진과 글 **엄 종 한** 한인뉴스편집위원

인도네시아의 만병 통치약 ‘미냑 까유 뿌띠 (Minyak Kayu Putih)’

백 진 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몇 해전 겪은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약용식물의 탐사와 채집을 위해 한-인니 공동 탐사대가 술라웨시 오지의 밀림을 헤매고 있을 때 였습니다. 갑자기 큰 비를 만났고 많은 인원들이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다소 쇼킹한 (?)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감기에 걸린 현지인들이 차례로 웃옷을 벗고 엎드려 서로에게 동전을 긁어 등과 팔다리에 피 멍을 들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상처 위에 투명한 오일을 발라주었습니다. 상처 부위에 오일이 닿자 몹시 쓰라린 듯 괴로운 표정들을 지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몸 속에 들어온 나쁜 바람(Bad Wind), 현지어로 마숙앙인 (Masuk angin) 을 몰아내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인들은 동전 생채기 마사지 덕분인지 그 오일 때문인지 모두들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마지막에 발라준 오일은 인도네시아 어디서든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민약 까유 뿌띠’ 라고 하는 식물성 오일이었습니다.인도네시아인들이 체기가 있을 때나 감기에 걸렸을 때, 근육통이나 몸살이 났을 때, 벌레에 물려 가려울 때, 목이 아프거나 코가 막혔을 때 등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는 가정 상비약이었습니다.

이 오일은 영명으로 ‘카주풋 오일(Cajuput oil)’ 이라고 불립니다. 동남아지역과 호주에 넓게 분포하는 멜라레우카 루카덴드론(Melaleuca leucadendron) 이라는 식물의 잎이나 새순을 증류해서 얻어지는 식물성 정유(Essential oil)입니다. 연녹색의 색깔을 띠고 있으며 주 성분은 Cineol(45-65%), Terpineol, Pinene 과 다양한 Aldehydes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오일의 향은 풀 냄새 비슷하며 약간 달콤하면서 장뇌(좀약) 비슷한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동남아시아와 호주 열대지역에서 널리 생산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술라웨시 지역이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합니다.

이 식물은 코알라의 먹이로 유명한 유칼립투스(Eucalyptus) 나무나 정향(Clove)이 속한 도금양 과(Family Myrtaceae) 에 속합니다. 약 20미터까지 자라며 줄기는 유연합니다.

나무껍질은 얇고 가늘며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카주풋' 이라는 말의 어원은 인니어로 ' Kayu (wood)' 와 ' Putih (white) 가 결합한 말로 하얀 나무, 흰껍질 나무라는 뜻입니다. 꽃은 밝은 흰색이며 모양이 세척용 솔과 비슷하다 하여 'Bottlebrush' 라고도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증기와 함께 흡입하면 코의 비강을 확장시켜 막힌 코를 뚫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흡기 계통에 대한 살균효과가 뛰어나서 감기나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과 같은 감염 증상 초기에 증상 완화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만성 폐질환이나 천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발한효과가 있어 열 감기를 치료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욕조에 몇 방울의 오일을 첨가하면 땀 분비를 촉진하여 인플루엔자의 독소를 방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통의 진정과 장염, 이질, 위 경련, 긴장구토, 기생충과 같은 장내의 염증을 완화 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뇨기 계통에 대한 살균 효과도 뛰어나서 방광염이나 요도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속성이 있어 근육통, 관절염과 류머티즘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미용의 목적으로 피부와 머리카락의 기름기와 색소제거에도 사용됩니다. 최근의 연구에선 일부 모기에 대한 구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동전으로 문질러서 몸 안에 들어온 마숙앙인을 내보내는 인도네시아 인들의 전통 처방을 '크로칸 (Kerokan)' 이라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저에게도 권유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동전이 비위생적이어서 2차 감염이 생기진 않을지, 과연 효과가 있을지 내심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크로칸 보다는 카주풋오일의 효능이 더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크로칸의 미신적인 요소와 부작용들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인도네시아 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민간요법으로써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 재

2013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신 성 철 / 데일리인도네시아 발행인
dailyindonesia.co.kr

성장 스토리 이어갈 것

2013년에 인도네시아 경제는 국내외 위험 요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국내외 경제전문가들과 금융기관들이 낙관했다.

안똔 구나완 다나몬은행 수석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하나-외환은행 2013년 경제 전망 세미나' 에서 올해 최저임금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외국인 직접투자(FDI) 강세, 중산층 성장에 따른 내수소비 증가 등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견인해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럽발 위기가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더 빈번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내 임금 급등, 지역격차 심화, 열악한 물류시스템,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률과 비공식부문 고용비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조화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기료 인상과 에너지보조금 개혁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 경상수지적자 지속, 사회보장제도 수립으로 저소득층 친화 정책 증가, 2014년 대선 준비, 유로 위기 심화될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 노동운동 증가 등을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으나,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투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똔 수석연구원은 "2013년 루피아.달러 환율을 9,500~9,600 범위로 전망한다" 며 "인도네시아은행(BI)이 수출 부양을 위해 루피아를 약세 용인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GDP성장률은 지난해 6.2%, 올해 6.3%;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2.0%, 올해 13.1%;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13.7%, 올해 12.3%; GDP 대비 경상수지는 지난해 -2.1%, 올해 -1.5% ;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5.0%, 올해 6.2% (보조금유가를 인상할 경우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연말기준 루피아.달러 환율은 지난해 평균 9,450 올해 9,503; 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난해 2.20%, 올해 1.50%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스 리서치도 구랍 13일 내수소비 지속, 투자환경 강세, 인프라 개발 가속화 등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바클레이스 리서치는 2013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6.3%로 전망했는데, 이는 아시아 신흥경제국 10개 중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2012년에 6.0%, 2013년에 6.3%; 인플레이션은 2012년에 4.4%, 2013년에 5.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 IMF는 2012년에 3.3%, 2013년에 3.6%가 될 것으로 전망한 한편 바클레이스 리서치는 2012년에 3.1%, 2013년에 3.3~3.5% 수준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스 리서치는 "선진국보다 신흥경제국의 성장 전망이 더 좋다"며 "신흥경제국들이 재정부양책과 통화완화정책을 통해 글로벌 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바클레이스 리서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2012년에 수출 약세를 내수수요 강세가 상쇄했다"며 "2013년에는 중국 경제가 개선되어 대외수요가 증가하겠지만 동시에 내수소비도 계속해서 경제를 견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새로운 인도네시아 소비자'라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가 2030년에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킨지는 현재 인도네시아 GDP 규모는 세계 16위지만 20년 후에는 독일과 영국을 뛰어넘어 7위가 될 것이라며, 그 근거로 '소비 파워'를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다른 아시아국가들과 달리 내수소비가 경제의 견인력이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4,800만 명으로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말레이시아(2,900만명)의 10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산층(연소득 3600달러 이상)은 전체 인구의 18%인 4500만 명으로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맥킨지는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이 2030년까지 9000만 명이 추가되어 1억3,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1인당 국민소득은 2011년에 3,000달러에서 2012년에 3,500달러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 61%였고, 향후 20년 간 6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6.5%로 1996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고,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6.2%로 G20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 2010년 4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6%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맥킨지는 2012년에 인도네시아 GDP가 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맥킨지 인도네시아의 아립 부디만 사장은 "인도네시아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들도 점점 부유해지고 세련되고 있어서 소비시장의 잠재력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아립 사장은 인도네시아 소비자지출이 연간 7.7%씩 증가해, 2030년에는 수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며, 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자동차, 오토바이, 주택, 스마트폰 및 외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은행(BI)은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째 기준금리를 5.75%로 유지하고 있으며, 저금리 덕분에 자동차, 부동산, 시멘트 등 부분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바클레이스 리서치는 올해도 저금리 환경이 계속될 것이라며, BI가 2013년 3분기까지 기준금리를 5.7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에서 지출이 레저와 자동차 구매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이웃국가로 레저여행을 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과거보다 고급호텔에서 머물며 값비싼 식사를 한다고 보고서에 언급했다.
메뉴라이프 에셋 매니지먼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중산층이 부상함에 따라 뮤추얼펀드산업이 유망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올해는 전기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고, 보조금석유 가격 인상 가능성도 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뱅킹 그룹'의 동남아시아 경제 담당 책임자 아닌다 미뜨라는 "현재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다"며 "임금 상승, 전기료 인상 및 유가인상 등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스 리서치는 연간인플레이션이 2012년에 4.3%, 2013년에는 5%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맥킨지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정치안정, 경제적 잠재력,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등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4년 말까지 경제성장률을 평균 6.6%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2012년에 6.5%, 2013년에 6.6~6.8%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은행(BI)은 2012년에 6.3%, 2013년에 6.6~6.7%로 전망한다. 2012년 3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6.2%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에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이 2013~2017년에 연평균 6.4%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이 2014년까지 6%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신용등급을 'BBB-',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탄력적인 경제성장과 높은 투자율, 낮은 공공 부채 비율을 등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WB)은 구랍 19일 인도네시아가 투자 증가와 국내 소비 호조에 힘입어 2013년 경제성장률이 6.3%; 인플레이션 4.9%; 투자증가율은 11.2%; 수출증가율은 3.8%; 수입증가율은 3.1%; 재정적자는 GDP 대비 1.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상승은 극복해야 할 문제

은디암 디옵 WB 인도네시아 담당 경제학자는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투자 부분이 40%를 차지했다"면서 "내년에도 투자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옵 경제학자는 "인도네시아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는 수출 증가로 이어져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투자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투자자를 인도네시아로 이끌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대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와 사업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인 자카르타 지역의 2013년 최저 임금이 220만 루피아로 전년대비 44% 인상됐고, 31개 주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19.8%다.

바클레이스 리서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개인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인도네시아 증권회사 인도프리미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가 1.3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합(KSPI) 사잇 익발 위원장은 2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월 평균 임금은 220만 루피아 수준이며 지방은 150만 루피아"라며 "인도네시아의 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낮다. 반면 태국의 평균 임금은 270만 루피아이고 필리핀은 250만~260만 루피아"라고 주장했다.
익발 위원장은 "매년 30%씩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오는 2015년까지 100% 인상을 요구한다"며 "임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최저임금 인상 산정 및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대로 임금이 매년 30%씩 인상되면 2015년에는 최저임금이 300만 루피아에 이를 것이다.

선거와 경제성장

페리 위리요 BI 이사는 2014년 선거를 앞두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2013년에 경제성장을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 이사는 2009년 선거 당시에 정당들이 현수막 구입, 광고 및 대규모 유세에 비용을 지출한 것이 경제를 부양했다며, 2013년 3분기와 4분기에 선거활동이 경제성장을 0.4~0.5% 부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가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2014년 2분기에 총선을 치르고 3분기에 대통령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KPU는 2014년 1월부터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고, 차기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정당은 16개다.
2009년 4월 총선 때는 국회의석 560석을 두고 38개 정당의 후보 11,000명이 경쟁을 벌였고, 대선은 3개월 뒤인 7월에 치렀다.
반뜬주 찔레둑에서 인쇄업을 하는 다당은 일부 후보들이 벌써부터 티셔츠, 명함, 현수막 등을 주문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선거기간에는 매출이 평상시보다 두 배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문이 시작됐지만 아직 많지는 않다. 올해 말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WB)도 2014년 선거가 올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

윤병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확대, 청년층 노동력 증가세, 주변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처로서 인도네시아의 전망은 계속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 경제국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계속해서 탄력성을 보일 것이라며 세계시장 침체 지속으로 수출 수요가 감소해 내수가 대부분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를 대신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타격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삼성증권은 자본 유입이 중단되고 유입된 글로벌 유동성이 일거에 유출될 경우 신흥국 경제권에 환율급등, 주가 급락, 외화유동성 부족 등의 위기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13년 인도네시아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루피아화 약세를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외적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세계 실질이자율 상승, 선진국 경기 침체,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 중단, 교역 조건 악화 등을 꼽았다.

우표를 통해 본 한국의 미 총집합!

경북궁 자경전 꽃담무늬

한국의 미 시리즈(1) 1991년 10월 26일, 각 2백만장

우리나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부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해마다 한국의 미를 시리즈로 하여 우표를 발행한 적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 놓은 전통문화와 생활상이 우표 안에 고스란히 담겨 풍류와 멋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의 미 우표시리즈' 를 통해 한국인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멋스러움을 만나보자.

<출처 :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꽃담은 집의 벽이나 담에 여러 가지 무늬를 놓아 독특한 치레를 하여 장식한 벽면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원을 꾸밀 때는 꽃담, 굴뚝, 화계(花階)등을 적당한 크기와 높이로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는 무늬를 놓아서 주변의 다른 시설들과 어울려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꽃담무늬는 단순한 장식이나 미적 표현이 아니라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데 만수무강, 수복강녕, 벽사, 길상 등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잘 알려진 꽃담은 경북궁 내에 있는 자경전(慈慶殿)의 서쪽 담벽으로 사군자, 모란, 연꽃, 태극무늬, 석쇠(귀갑)무늬, 문자무늬 등 각종 무늬가 집중적으로 장식되어 있다.

한국 전통 노리개> 봉술노리개 소삼작/도금 낙지발술 노리개 삼작/도금호리병 노리개 삼작/대삼작 노리개

한국의 미 시리즈(2) 1992년 9월 21일, 각 2백만장

매듭이란 한 가닥의 끈목(여러 올의 실로 짠 끈의 총칭)을 돌리고 맺고 하여 끈목 한 자리에서 세 가닥 이상으로 얽어서 만들어 내는 모양새를 두고 이르는 말이며 제대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끈목이 있어야 하고 또 술(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이 따라야 한다.

매듭의 종류는 30여 가지에 이르는데 여성들의 노리개에서부터 무사들의 전복(戰服), 실내장식, 행사 때의 운반구 장식, 부채 등이나 서원, 사찰의 의식용 유소(流蘇 – 큰 매듭) 등 매우 다양하다. 우리 민족의 예술적 우수성은 모든 예술품이 자체의 균형과 함께 외부조건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특히 여성들의 패물인 노리개용으로 만든 매듭 위쪽의 다양한 부분은 짧은 저고리 길이와 어울리며 훤칠하게 드리운 '술' 부분은 긴치마의 길이와 같은 비례로 만들어져 선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질서미와 균형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매듭의 대칭적인 면은 자연만물이 대칭적인 것과 연결되어 가장 인공적이면서도 가장 자연적인 면을 느끼게 한다.

조선시대 관복의 흉배(胸背)문양> 쌍호흉배/쌍학흉배/단학흉배/왕의 보

한국의 미 시리즈(3) 1993년 10월 11일, 각 2백만장

흉배는 일종의 계급장으로 왕족의 경우는 보(補), 신하의 것은 흉배라고 하는데, 왕의 보는 1850년경의 것으로 곤룡포의 양 어깨와 가슴과 등에 붙였으며, 왕을 상징한 용(龍)을 주위의 곡선문양이 아늑하게 감싸주고 있다.

단학흉배(單鶴胸背)는 당하관이하 문관용인데, 1600년경의 것으로 북청색(北靑色) 운문단(雲紋緞)바탕에 불로초를 입에 물고 나래를 활짝 편 학의 모습은 덕망 높은 문관을 상징하며, 사이사이에 물방울, 불로초, 칠보문양(七寶紋樣), 파도, 만자(卍字) 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쌍학흉배(雙鶴胸背)는 당상관 이상 문관용인데, 이번의 것은 1890년경 민간혼례식에서 신랑이 입는 사모관대(紗帽冠帶)에 붙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홍색 소화단(小花緞) 바탕에 불로초를 입에 물고 나래를 활짝 편 쌍학을 중심에 두고 주위에는 그름을 비롯하여 바위, 물결, 파도, 보전문양(寶錢紋樣)등을 수놓았다.

쌍호흉배(雙虎胸背)는 당상관 이상 무관용으로 1720년경의 것인데 북청색 운문단 바탕에 태극을 사이에 두고 호랑이가 얼굴을 돌리면서 뒤의 호랑이와 마주 보는 형상이다. 주위에 19편의 오색구름을 비롯하여 파도, 바위, 물결, 소나무 등을 수놓았으며 우뚝 솟은 바위를 호랑이가 밟고 있는 모습은 무사다운 용감한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악기

한국의 미 시리즈(4)

운라 1991년 9월 26일
운라는 놋쇠로 만든 작은 징 10개를 나무틀에 매달았다. 나무망치를 쳐서 소리를 내는데 그 음이 경쾌하다. 행진할 때는 밑에 달린 손잡이를 뽑아 들고 치고 앉아서 칠 때에는 받침대에 세워놓고 친다. 조선왕조 후기부터 대취타에 사용되었다.

징 1991년 9월 26일
징과 대금은 동일한 악기이다. 문헌상으로 보면 용도에 따라 몇 칭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종묘제례악에 사용될 때는 대금으로 기록 되어 있고 대취타, 무악, 농악 등에 사용될 때에는 징이라 부른다. 농악에서 꽹과리(소금)는 잔가락을 치고 징은 매장단 첫 박에 많이 친다.

생황 1991년 9월 26일
박통 속에 죽관을 나란히 꽂은 것이다. 죽관의 아래쪽 외면에 있는 구멍을 막으면 소리가 나고 열면 안 난다. 죽관 하단에 금속청이 달려서 하모니카와 같은 원리로 숨을 내쉬고 들여 마실 때 소리를 낸다.

좌고 1992년 2월 24일
북 한 개를 틀에 매달아 춤 반주에 쓰기도 하고 관악합주에 사용하며 현악에는 쓰지 않는다. 단원 김홍도의 '무악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꽹과리(소금) 1992년 2월 24일
종묘제례악(종묘에서 제사지낼 때 쓰이는 음악)에서는 소금으로 기록되어 있고, 농악에서는 꽹과리라 부르며 잔가락을 치는데 상쇠잡이가 되어 시작과 끝장단의 가락을 조절, 인도한다. 또 북과 함께 굿에도 쓰인다.

갈고 1991년 9월 26일
갈고는 크기와 모양에 있어서 장고와 비슷하난 양쪽가죽이 얇고 양손에 채를 잡고 치며 양쪽에 굴레가 있는 점이 장고와 다르다. 갈고는 조선시대 영조 이후의 진연의궤에 보이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용고 1992년 2월 24일
태평소, 나발, 징, 자바라, 나각 등과 함께 대취타(일종의 군악, 임금이 성문을 나설 경우 등에 쓰임)에 쓰인다. 북통에 용을 그리고 고리를 달았으며, 북가죽이 상하로 되게 허리에 매어달아 양손에 북채를 쥐고 친다.
특종 1992년 2월 24일
종묘제례악 등에서 쓰이는 특종은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악기로써 큰 종 하나를 매달아 각퇴(角槌, 각추라고도함. 악기를 치는데 쓰는 뿔 방망이)로 쳐서 소리를 낸다.

한국의 전통 문(門)> 창덕궁 불로문/창덕궁 주합루 어수문/범어사 일주문/아외마을 솟을대문

한국의 미 시리즈(5) 1995년 5월 22일, 각 2백만장

창덕궁(사적 제122호) 불로문(不老門)
애련정(愛蓮亭)으로 들어가는 곳에 임금의 만수무강을 염원하여 세운 석문(石門)으로 통돌을 문얼굴 모양으로 다듬어 반석 위에 세웠다. 윗부분의 양모서리는 안쪽을 직각으로 다듬고 바깥쪽은 둥글게 굴려 부드럽게 처리하여 하늘은 둥글고 땅

은 네모져 있다는 천원지방(千圓地方)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창덕궁 주합루 어수문(魚水門)
조선 정조때 세워졌던 주합루를 오르는 첫 단에 있으며 일각문(一角門)세 개를 모은 삼문(三門) 형식이다. 예로부터 임금과 신하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에 비유되곤 하는데 "어수문"이라는 이름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범어사 일주문(一柱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일주문 형식의 건축물중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주의 모든 법도가 갖추어져야 일체(一切)가 통한다는 법리가 담겨있어 일명 삼해탈문(三解脫門)이라고도 한다. 삼문형식으로 높은 주춧돌 위에 짧은 기둥이 세워져 있고 맞배지붕이 얹혀 있다.

하회마을 양반가옥 솟을대문(중요민속자료 제84호)
안동 하회마을은 고려 말부터 풍산 류(柳)씨가 살아온 동족 마을로 전통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집은 일명 하회북촌댁(河回北村宅)이라 하는데 안채, 사랑채, 대문간채, 사당 등을 두루 갖춘 전형적인 양반 주택이며 대문은 행랑채 지붕보다 높게 만든 솟을대문으로 당시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패물중 하나인 주머니> 오방낭/엽낭/귀주머니/진주낭

한국의 미 시리즈(6) 1996년 11월 1일, 각 2백만장

실용과 미를 겸한 장신구인 주머니는 형태, 장식, 용도 등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형태는 크게 나누어 모난 것(귀주머니 또는 줌치)과 둥근 것(두루주머니 또는 엽낭)이고, 장식에 따라서 금박주머니 수(繡)주머니 등이 있으며, 용도별로는 향낭,약낭,필낭,주저집,안경집,쌈지,도장주머니 등이 있다.

오방낭(五方囊)은 동,서,남,북, 중앙을 나타내는 5방위를 뜻하며 오행론(五行論)에서 나온 청, 홍, 백, 흑, 황색으로 주머니앞뒤를 다섯으로 나누어 수를 놓아 연두, 자주, 분홍, 노랑의 봉술을 한 쌍씩 늘어뜨렸다. 새해의 첫 번째 돼지날에 재상가의 어린이들에게 액을 면하고 한 해를 잘 지내라는 뜻으로 붉은 종이에 노란 콩 볶은 것을 싸서 이 주머니에 넣어 보냈다고 한다.

엽낭(葉囊)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니는 주머니로 입술에 잔주름을 잡고 양편에서 서로 엇바꾸어 끈을 꿴 둥근 모양의 주머니를 말한다. 도안으로 사용한 봉황낭(鳳凰囊)은 왕비가 대례복인 적의를 착용할 때 사용한 주머니로 검정 공단에 금색 실로 왕비의 상징인 봉황을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으로 수놓았다. 주머니의 입은 일반 백성의 세모주름과 달리 육모주름을 잡아 왕실의 권위와 상징을 나타냈다. 도안으로 사용한 십장생낭(十長生囊)은 매사에 길상(吉祥)을 기원하는 뜻이 담긴 주머니로 조선조 순조의 둘째 따님인 복온 공주가 시집갈 때 만들어 간 수(繡)귀주머니를 복원한 것이다.

진주낭(眞珠囊)은 왕비, 빈, 공주의 대례복에 세 줄 노리개와 더불어 장신구로 겉치마에 달았습니다. 녹두알만한 진주를 박고 금실로 수놓아 다홍바탕에 알알이 진주가 반짝이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속에는 잘게 다진 향과 고운 가루향이 가득 들어 있어 옛 여인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알 수 있다. 우표에 실린 진주낭은 대한제국 순종 왕후 윤비의 것으로 가례 때 고종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예물이라고 한다.

선조들의 멋과 정취가 가득한 보자기> 오색 항라조각보/오방색조각보/연두항라조각보/ 사원색조각보

한국의 미 시리즈(7) 1997년 11월 3일, 각 2백만장

보자기는 물건을 싸거나 덮어 가리던 우리 고유의 생활용품이다. 제작방법에 따라 보자기는 조각보와 수보(繡褓)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수보는 주로 혼례 등의 길사(吉事)에만 쓰였고 그 문양으로는 나무와 꽃, 학, 봉황, 공작, 나비, 풀, 벌레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조각보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크기와 모양과 색상이 각양각색인 수많은 조각천들이 자유롭게 결합되어 기하학적인 조형과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각보는 폐품활용이라는 생활 속의 번뜩이는 지혜의 소산으로 일반 서민층에서 조로 통용된 듯하다. 남은 천 조각을 활용한 우리선조들의 생활 속의 지혜와 탁월한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조각보는 그 구성미가 현대미술의 미적 안목으로 보아도 대단히 높은 수준이이서 최근 들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문방사우의 작은 예술품 연적(硯滴)> 청자복숭아연적/백자양각동채쌍학문연적/청화백자동채잉어연적/청화백자동채복숭아연적/청화백자철채두꺼비연적/청화백자투각운용문연적/청자원숭이연적/청화백자집연적

한국의 미 시리즈(8) 1998년 11월 20일, 각 80만장

연적은 붓글씨를 쓰기위해 벼루에 먹을 갈 때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용기로 두 개의 구멍으로 공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만큼의 물이 나오도록 되어있다. 삼국시대 때 벼루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연적도 함께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에 와서는 지식인 사이에 글을 쓰는 취미가 보급되면서 청자로 된 아름다운 연적이 많이 만들어졌다. 글을 숭상하던 조선시대에는 연적 또한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수량도 많아지게 되었다. 연적은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비교적 큰 것은 장식품으로 애호되어 왔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독특한 미술문화 "문자도(文字圖)

한국의 미 시리즈(9) 1999년 11월3일, 각 35만장

문자도란 글자의 시각적 형상과 언어적 내용을 결합시킨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면 왕상이 한겨울에 계모에게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드린 '왕상빙리(王祥氷鯉)'나 맹종이 한겨울에 노모를 위해 죽순을 따낸 '맹종설순(孟宗雪筍)'의 효행일화를 잉어와 죽순에 비유하여 '효(孝)'자를 형상화하는 것처럼, 글자마다 그 뜻과 관련된 일화나 상징물을 곁들여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표에 소개된 효자문자도는 19세기 중엽에 그려진 것으로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의 여덟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효도, 형제와 이웃 간의 우애, 충성, 교신,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뜻으로 유학의 윤리관을 나타내고 있다. 효제문자도는 18세기에 들어와 집안치레가 유행되면서 병풍으로 꾸며지게 되었고 19세기 후반에 와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글자는 아주 단순화되고, 삽입되는 그림은 장식이 많아지는 등 회화성이 부각된다.

세금착강화문즐 - 장식빗

장식용으로 머리에 꽂게 된 대모제(代帽製) 빗으로 빗살과 손잡이는 직각에 가깝게 꺾여 있으며 이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청옥을 감입한 금으로 만든 꽃무늬 장식을 매달았다. 손잡이 부분에는 금사로 각종 꽃무늬를 새기고 그 속에는 청옥을 감입시켰다.

족두리
부녀자가 의식 때 예복을 갖추어 사용하던 것으로 조선시대 가체금지령이후 화관과 함께 쪽머리에 쓴 것이다. 검은 천위에 도금한 금속을 이용해, 복(福)자 · 봉황 등을 장식하고 위쪽에는 삼색의 보석과 용수철을 이용한 장식을 달아 한껏 멋을 내었다.

떨잠
왕비를 비롯한 상류계급에서 예복을 입고 어여머리나 큰머리를 할 때 머리 앞 중앙과 양쪽에 하나씩 꽂는 머리 장식물이다. 떨잠에는 둥근형 · 네모형 · 나비형 등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며 옥판에 칠보, 진주, 산호 등으로 장식하였다.

용잠 · 봉황영락잠
용잠은 비녀머리에 용을 조각한 것으로 용은 궁중에서 주로 왕비가 꽂았으나 상류층을 비롯하여 사대부와 서민층의 부녀자도 혼인날에는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봉황영락잠은 왕가에서 대소의식이 있거나 특별한 날에 왕비나 공주, 옹주만이 착용하던 비녀이지만 왕가와 연을 맺은 사대부가에서도 사용하였다. 비녀 머리에 봉황 무늬를 양각하고 칠보와 함께 산호, 진주 등의 보석류를 치장해 조선의 비녀 중 가장 화려한 장신구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미 시리즈(10) 2000년 11월 1일, 각 125만장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마감상황

국가명	공 관 명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국선대비 증감률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합 계		222,389	158,235	71.2	123,571	56,456	45.7	180.3
동티모르	동티모르(대)	77	68	88.3	60	53	88.3	28.3
베트남	계	7,581	5,614	74.1	5,256	2,166	41.2	159.2
	베트남(대)	1,743	1,410	80.9	656	373	56.9	278.0
	호치민(총)	5,838	4,204	72.0	4,600	1,793	39.0	134.5
싱가포르	싱가포르(대)	3,635	2,996	82.4	2,197	1,162	52.9	157.8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	**4,597**	**2,860**	**62.2**	**3,237**	**1,100**	**34.0**	**160.0**

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율 71.2%
제19대 총선 투표율(45.7%)보다 25.5% 높아
재인도네시아한인사회 2,860명투표, 6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지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세계 164개 공관에서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사건, 사고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 가운데 최종투표율은 71.2%로, 전체 재외선거 명부등재자 222,389명 중 158,235명이 투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율 45.7%보다 25.5%정도 증가한 것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강한 참여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미국 37,103명(71.6%), 일본 25,312명(67.8%), 중국 24,330명(68.2%), 캐나다 7,048명(74.2%), 독일 4,252명(78.2%), 러시아 1,452명(74.3%), 영국 2,352명(78.2%), 프랑스 2,459명(76.1%)으로 나타났다.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77,931명(69.0%), 미주 53,614명(72.9%), 구주 18,623명(77.2%), 중동 5,660명(67.9%), 아프리카 2,407명(70.8%)이다.

중앙선관위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선 재외투표율이 지난 총선에 비해 증가 한 이유는 대통령선거에 대한 중요성과 재외국민사회의 관심도 증가, 총선의 학습효과 및 홍보효과, 신고, 신청 편의 제공, 투표 편의 대책 등이 효과를 낸 결과였다. 중앙선관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해 주신 재외국민들을 비롯하여 선거 과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재외공관 직원 등 재외선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재외선거명부등재자 총 4,597명 중 2,860명이 투표하여 62.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
투표도 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은 되고 싶지 않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도입된 재외국민투표가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카르타한국문화원에서 실시되었다.

투표일 이전에 선거인등록을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장으로 들어서서 신분을 확인시킨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귀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지난 4 · 11 총선에 이어 두 번째이며,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유권자들이 미리 나와 줄을 서는 풍경을 연출하며 지난 총선 때보다 많은 참여도를 보였다. 투표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한결같이 "5년간 모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데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했다.

첫날, 가장 먼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조성문씨 부부는 "투표를 위해 브까시에서 6시에 집을 나왔다"며 첫 번째 투표자가 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김영선 대사 부부도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이른 아침 투표에 참여하여 한 표를 행사했다.

프레지던트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전혜지 씨는 "저의 한 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투표도 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

하는 국민은 되고 싶지 않아 투표장에 나왔다"며 생애 처음으로 투표한 소감을 밝혔다.

투표 시작 전부터 투표소에 미리 나와 기다렸던 한 유권자는 "제일 먼저 투표하면 내가 찍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일찍 나왔다"며 "다음 대통령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유권자수는 28,831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이번 대선 재외국민투표에는 15.9%인 4,597명이 등록했다. 지난 4월 총선 때 3,237명이 등록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늘었지만 그리 높지 않은 등록률이다.

설태선 인도네시아 재외선거관은 "유권자들이 지난번 총선보다 이번 대선에 관심이 더 높다"며 "주요 후보의 참관인을 배치하는 등 공정성에 만전을 기했다"고 투표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박당선인 "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 돼 국민 행복시대 열 것"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첫 여성대통령 당선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박정희대통령에 이어 부녀대통령이라는 새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2012년 12월19일 총252개표소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개표결과 최종투표율75.8%(3071만1459명)로 집계되었고,총 득표율 48.0%(1469만2632표)의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재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7%(1577만3128표)로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대선에서 박후보의 당선은 무엇보다 야권 단일화 연대에 맞서는 보수,장년층의 결집이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 되고 있다.

75.8%라는 근래 보기 드문 투표율에는 10%가량 늘어난 50,60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들의 박근혜에 대한 지지로 해석된다.

대구 경북지역의 80%넘는 절대적 지지와 충청권, 강원권 등 서울.호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박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시도했지만 박근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선 전체적으로 새로운 판짜기가 시작 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쥔 10년 정권을 만들어냈다.

박 당선인은 광화문 광장 축하행사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국민 마음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며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71.2% (재외선거인 수 22만2389명 중 투표자 수 15만8235명)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재외국민선거개표결과 문재인 후보는56.7%(8만9천192표)인 반면 박근혜 후보는42.8%(6만7천319표)로 문후보가 우세했다.

제 2차 한-인니 경영지원 교류회

한인상공회의소(수석부회장 송창근, 이하 코참)는 20일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제 2차 한-인니 경영지원 교류회'가 대사관 박영식공사, 아흐마드 꾸르니아 투자조정청 부청장, 루슬란 이리안또 심볼론 노동부 총국장, 한인기업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교류회는 인니 지경부, 인니 투자 조정청이 주최하고 한국대사관, 코참, 대한상의, 코트라가 주관하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 정례적 간담회를 통해 투자문제점 해소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노무, 관세, 투자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준비된 질의서 중심의 토론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조세분야 합동토론회와 분과별 결과회의, 공식만찬의 순서로 행사는 진행되었다.

코참 안광진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인도네시아가 있다" 며 "이 자리를 통해 양국 동반 성장과 더불어 경제주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이기를 바란다" 고 말하였다.
참석자들은 보세구역과 일반 통관, 구법규와 신법규 충돌에 대한 해결책과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최저임금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 등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피콜의 관계자는 "4-5년 전부터 불법복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오프라인 일반 매장 인터넷 쇼핑몰에까지 한국산 오리지널 제품으로 버젓이 기재되고 있다" 면서 "세관에서 전산망을 통해 해피콜의 상품명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방법 및 인도네시아 특허청과 경찰 공조로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 요청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제도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많은 한인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교류회를 통해 경영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이며, 더욱 활발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까리안댐 건설 감리 계약서 서명식

농업분야 SOC 국제경쟁력 다시 한 번 입증
인도네시아 2억5천만 달러 댐 건설 사업진출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오른쪽)과 모하마드 하산(Mohammad Hasan) 인도네시아 수자원청장이 2012년 12월 21일 자카르타 공공사업부에서 까리안댐 건설 감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까리안 댐 건설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재순 사장과 모하마드 하산 수자원청장은 21일(현지시각 10:30)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니 공공사업부에서 총 공사비 2억 5천만 달러 중 6백 9십만 달러의 공사감리 계약에 서명했다.

내년에 업체선정과 더불어 착공하여 2017년 완공 예정인 총 저수량 2억톤 규모의 까리안 댐은 자카르타 서부와 반뗀주 주민 400만명에게 생활 및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이다. 저수량 2억 톤은 우리나라 팔당댐 규모이다.

농어촌공사는 04년부터 06년까지 까리안 댐 건설 타당성조사 및 설계를 수행한 바 있으며 공사감리를 맡게 된 만큼 국내 건설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순 사장은 이날 계약식에서 "수자원 개발 및 농업생산기반 기술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앞으로 태국 등 농업분야 SOC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2010년 세계은행차관사업으로 자띨루후르 관개시설 개보수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세부설계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서부 따룸수로 개보수 설계와 중부 깔리만탄 농업개발 시범사업 등 인도네시아와의 수자원 개발 및 농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자카르타 젖줄' 칠리웅강 살리기 착수

인도네시아 강 살리기에 한국 환경기술 수출

유영숙 환경부장관과 한국대표단3명은 2012년 12월 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발타자르 칸부아야 환경부장관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리웅강 수질개선을 위한 복원시범사업 착수식을 가졌다. 이 시범사업은 양국 환경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900만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칠리웅강 본류 가운데 아스티끄랄 사원 주변 500m 구간을 2015년까지 3년간 복원하게된다.

우리나라의 강 복원 환경기술과 경험이 이 시범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인도네시아 환경관련공무원들의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시민들을 위한 주변 공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계한민족네트워크 정기총회 및 송년회

세계한민족네트워크 (KOWIN)은 장수대 레스토랑에서 2012년 12월 11일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한 해 동안 활동했던 차세대 여성을 위한 생생 토크와 밀알학교 현황보고 등 각 분야별 업무보고와 함께 2012년 코윈 차세대 행사 피드백 및 2013년 업무계획, 활동에 대한 논의 및 건의 사항, 회원 증대 방안 논의 등이 있었다.

생생토크 진행을 맡았던 모순옥씨는 "한인 여성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차세대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정보가 부족했던 한인 여성들이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 말했다.

이순재 담당관은 "차세대 활동의 가장 큰 가치는 새로운 기회임" 을 강조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2012년 하반기 한인회 정기 이사회

신기엽 후보, 제4대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으로 당선

지난해 12월 7일, 자카르타 르 메르디앙 호텔, '2012년 하반기 한인회 정기이사회' 에서 선거를 실시한 결과 신기엽 후보가 제4대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날 4시부터 시작된 이사회는 입후보자 추천 및 소견 발표로 1시간 동안 이어진 후, 선관위원이 참관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차기 한인회장을 뽑는 투표가 진행되었다.

김상태 한인니문화연구원 이사장, 신기엽 한인회 수석부회장,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양영연 대한체육회인니지회장 등이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송창근 후보와 양영연 후보는 투표 직전에 후보를 사퇴하였다.

한인회 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98명 가운데 75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신기엽 후보가 55표, 김상태 후보가 19표를 얻었다(무효 1표). 투표결과에 따라 신기엽 후보가 36표 차이를 보이며 한인회장에 당선되었다.

신기엽 차기회장은 "소통으로 하나 되는 한인사회, 나눔으로 축복 받는 한인사회, 현지인들과 더불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 다같이 축복 받는 한인사회" 를 만들겠다며, 이전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과 양보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신기엽 차기 회장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013년 대사관하례식

조규철 한인회수석부회장 국민훈장 석류장 전수

2013년 1월 2일,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은 대사관직원, 한인단체 주요 간부 및 지상사 대표 등 각계 인사 80여명을 대사관저로 초청하여 2013년 신년하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영선 대사와 한인회장의 신년사에 이어 국민훈장 및 표창 수여,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학교시설 개선금전달식 순서로 진행됐다.

한인회 조규철 수석 부회장에게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땅그랑반뜬 한인회 이세호 회장에게 대통령 표창장을, 서남아협의회의 김문환씨와 박영수씨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총 23명의 교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김영선 대사는 신년사를 통해 "계사년의 키워드는 변화이다. 새로운 변화에 잘 대응하여 우리의 위치를 잘 찾아 나가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정부가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신기엽 제4대 한인회장은 "인도네시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해로 만들자" 며 "인도네시아인과 같이 호흡하는 한인사회를 후대에 넘겨주자 " 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문고를 설치하여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하여 대사관과 협조하여 힘이 되어주겠다" 고 말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한 조규철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내년에는 한인사회에서 상을 받게 될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한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공식행사를 마친 후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2013년을 전망했다.

수상자 명단:

국민훈장 석류장: 조규철 한인회 수석부회장,
대통령 표창: 땅그랑 반뜬 한 인회 이세호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 서남아 협의회 김문환, 박영수

대사 표창:
김경화(Tanah Merah Mission Choir) 박정숙(태권도 천지인), 권희정(삼익인도네시아), 안영수(한인어린이합창단), 정은지(무지개공부방), 이태복 (땅그랑한인회), 최홍세(자유총연맹인도네시아지회), 장미숙(민주평통 서남 아협의회), 안선근(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장문선 (샤프론봉사단), 김미경(한국국제학교), 박성혜(세종학당), 김석주(밀알한글학교), 김태화 (P.T Locus), 양태화 (P.T Bosung), 김재호 (P.T Dongsan) 김익순(P.T Donggen Chemical), Helfi (경성어학원) 총 23명

2012 한국어 교육 워크샵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한국어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2012 한국어 교육 워크샵'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1일 한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렸다다.

이 행사에서 경성 어학원 한국어 교사인 헬피씨가 인도네시아 현지고교의 한국어반 운영 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어 김도형 참사관(대사관)의 사회로 UI 유종균 교수, UI 임경애 교수, 이동률(경성어학원)원장이 페널로 나와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교육 수준 제고 방안을 위한 발표 및 토의가 이뤄지며, 인도네시아 내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학생지도 이론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UI, UGM 외 메단 말랑 등지의 600여명의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소, 한인회 문화원,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가 세계어로 확산됨에 따라 우수한 교사지원과 양질의 교과서 활용 등 인니 정부에 한국어 열기의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UI 유종균 교수(KOICA)는 전했다.

김영선 대사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 하겠다" 고 밝혔다.

경성어학원 이동률 원장은 "한국어 교육은 교육 대상자에 따라 교재가 달라야 한다. 대상의 관심도와 학습 목표에 맞추어 양국의 문화를 테마로 삼아 말하기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국어 교재 개발 중에 있는 우이대 임경애 교수는 "한국어 교재의 선정과 개발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학습자가 꾸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대상에 적합한 교재를 선택해서 교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서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세종학당의 박근순 교수의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 방법에 관한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막을 내렸다.

Cultural Cooperation & Korean Wave
문화협력을 위한 한류 세미나

2012년 12월 14일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은 '문화협력 & 한류' 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Borobudur Hotel 에서 김영선 대사, Dr.Mari Elka Pangestu장관(관광창조경제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류의 발전 방안, 한류와 경제 효과, 인도네시아 한류 상황, 한류와 인도네시아, 한국의 문화산업정책 현황과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안 등의 주제로 한류와 한-인니 문화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김영선 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더 한류를 발전시켜 나가며 양국이 같이 힘을 합쳐나가는가를 의논하는 자리" 라며 그곳에 모인 한국의 팬들에게 감사의 말도 덧붙였다.

수개월 전에 한국의 앞선 창조산업을 둘러보고 왔다는 관광창조경제부 Mari 장관은 "창조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국가의 위상을 높여줄 것" 이라며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산업개발, 기관의 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 창조산업연구소 고정민 소장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정부정책의 벤치마킹, 문화교류의 확대, 공동제작 활성화, 한국 문화원의 역할 제고 등 쌍방향 교류가 이루어 져야한다" 고 강조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문화 한류에서 비즈니스 한류로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류의 확대가 무엇보다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문화콘텐츠를 전공하는 대학과 학생들 간의 문화교류나 한-인도네시아 공동제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문화원형을 발굴해 이를 현대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하여 글로벌을 지향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콘텐츠로 공동제작을 한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한류가 많이 퍼져있지만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한류가 어느 정도인지 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세미나에 앞서 지난 10월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2012' 에서 보컬 부문 대상을 차지한 나디야와 마르와의 쇼케이스 콘서트가 열렸다.

KOICA, 인도네시아 대학교 IT 훈련센터 개원식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 박대원)은 지난 해 12월 12일(수) 인도네시아 대학교(UI)에서 'KOREA-UI IT훈련센터' 개원식을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 Mohammad Nur 교육문화부 장관, Joko 인도네시아 대학교 총장대리, 신기엽 한인회 수석부회장, 최성호 KOICA 소장 등 양국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동 IT 훈련센터는 양국 간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03년에 인도네시아 대학교 2개 캠퍼스(Depok, Selemba)에 총 125만불 규모로 한국정부의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지원된 이후, 이번에 60만불 규모로 내부 인테리어 개선 및 IT장비 업그레이드, 센터 운영인력 연수 등 기존 프로젝트의 사후관리가 추진되었다.

Mohammad Nur 교육문화부 장관(좌) 과 김영선 주 인도네시아 대사(우)가 프로젝트 양도증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금번 IT 훈련센터 사후관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IT 장비 지원 및 스마트 러닝 시스템을 전수하여 향후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인재양성과 IT 기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인니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T훈련센터 현판 제막식

인도네시아우리은행 브까시지점 개설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1등으로 모시는 1등 은행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우리은행(은행장 최상학)은 2012년 12월 12일 브까시에 있는 끄망 쁘라따마에서 브까시지점 개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인도네시아우리은행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였고, 금번 인도네시아에 6번째 지점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재인니대한체육회 양영연 회장, 대한민국대사관 강성팔 국세관, 대한글로벌 이부형 사장 등 한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브까시 지역 경찰관계자 및 현지인 주요 고객들도 참석하여 브까시지점 개점을 축하하였다.

우리은행 최상학 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브까시지점을 개설하였고, 한국계 은행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금번 브까시지점 외에 2013년 1월 찌까랑 루꼬유니온에 7번째 지점 개설 및 2013년 상반기에는 ATM 직불카드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으로 교민들에게 더욱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nfobank지 선정 16년 연속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된 인도네시아우리은행은, 은행연합회(AFBI) 평가 '2011년 그룹별 경영성과 최우수 Top3 은행' 에서 그룹 내 1위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최우수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우리은행 최상학 행장은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1등으로 모시는 1등 은행이 되겠다" 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실업고와 재인도네시아 한국기업간의 자매결연

인도네시아교육문화부 실업고국 (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Direktoran Pembinaan SMK : 이하 인니교육문화부 실업고국) 과 사단법인 한-인니 문화연구원 특수교육팀 (이하 특수교육팀)은 2012년 12월11일 자카르타 망가두아 소재 이비스호텔에서 인니실업고 학교장(150개 실업고) 및 관계자 그리고 70여개 재인도네시아 한국기업대표 및 인사,총무 관계자가 참석하여 실업고와 기업체가 산학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자매결연을 통하여 인니실업고는 한국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재인도네시아한국기업은 청년 근로자(현장실습중인 재학생과 졸업생, 사회초년생)를 안정적이면서도 우리기업 특성에 맞추어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인니교육문화부 실업고 아낭차요노 국장(Dirctor SMK)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의 선진 산업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좋은 기회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청년 근로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인니 교육문화부 실업고국은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매년 인니교육문화부 실업고국에서 학교장 및 교사들에 대하여 단기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그 중 201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한국 단기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니 실업고와 한국의 특성화고 (로봇틱고 , 서울디지탈고 , 선린인테넷고, 서울여상 , 휘경산업고 ,서울관광고)와 한국어 이런닝 연구소인 셀코, 한국모바일컨텐츠 공급사인 주)콘 등과 다양한 국제교류를 시작하였고, 재인도네시아 한국기업과는 2012년 9월부터 PT.Mapa, PT.Daelim, PT.Samic Indonesia, 뉴서울슈퍼, 로뎀투어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300여 명의 실업고 학생들이 3개월간의 현장실습과정을 무사히 끝내는 등 한국과의 교류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여 인도네시아 전체 실업고 10,640 학교 중(재학생 : 약 4백만 명) 국립실업고중 우수한 학교를 150개 선발하여 재인도네시아 한국기업체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산학협력을 공신력 있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재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중 PT.Pratama Abadi Industry, PT.Sung Chang Indonesia, PT.Corn Indonesia, Mi Plant Dental, Hana Tour, Queen Dom Salon등 다양한 업종에서 참여하여 인니 실업고와 산학협력의 양질의 파트너를 만난 것이다.
오늘 맺어진 자매결연을 통하여 실업고와 기업체는 자율적으로 산학협력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인니교육문화부 실업고국에서는 아시아담당 자문위원을 특별히 위촉하여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학교장들은 12월 12일 JIKS, PT.LG Electronics Indonesia, PT.Kyung Seung Trade, PT.Krakatau Posco 기업체 방문과 12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업체 대표 등을 초청한 세미나를 끝으로 3일간의 행사가 종료되었다.

<기사제공 한-인니문화연구원 특수교육팀>

제2회 3C's 프로젝트 'New Artist Project 2012' 시상식 및 전시

한국문화원(원장 김현기)은 제2회 3C's 프로젝트 'New Artist Project 2012' 시상식을 문화원 다목적실에서 수상자와 그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작품 전시회는 2012년 12월 12일에서 21일까지 10일간 열렸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인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젊은이들 모두의 예술적 기반을 향상시키고, 예술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환경과 예술가들의 실질적인 네트워크와 플랫폼 형성의 가교 역할을 위해 기획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홍미숙 (한국 – 인도네시아 예술협회장 역임), 아이술 얀또(HIPTA, 자카르타 미술 협회위원), 밤방 위자나르꼬 (현 BUDPAR 사진 협회장)로 위촉하여 심사를 하였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평화를 주제로 하여 회화 작품, 설치 미술, 사진 등 3개 부분에 걸쳐 총 40점이 출품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출품작들이 예술 활동에 전념하는 기존 작가들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작품이다"라며 "제목과의 연관성, 독창성, 구성을 평가기준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문화원 김현기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재능을 가진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더욱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통해 두 나라의 훌륭한 예술 작품들이 함께 만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수상자회화 1등: 김대호 (평화를 열망하는 인도네시아), Angga Yuniar Santosa (Mixing Culture) 2등: Rosanto Bima Pratama ("Still Voicing Peace") 3등: Abdurrohman Wahid (Imagine)

설치 미술1등: Fran Hakim (Dali, Gandhi, and Lennon)2등: Ludira Yudha (Old Man (Gandhi)) 3등: Apri Susanto (Harmoni dalam Diam/침묵 속의 조화)

사진 1등: Rizky Purnama Sari (I just wanna say "PEACE" !!!)2등: Heidy Rachelia (Starting Path to Inner Peace) 3등: Annidha Wulandari (Indonesia Ku Satu/하나의 인도네시아)

김영선 대사, Patria Andromeda 1호 진수식 참관

김영선 대사는 2012년 12.28(금) 바땀 소재 PT Tri Karya Alam(사장:박동희)를 방문하여 1만 톤급 석탄수송 선박인 Patria Andromeda 1호 진수식에 참석했다.

김영선 대사는 Nur Syafriadi 리아우제도주의회 의장 등 주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진수식에서 인니의 젊은 디자이너가 설계한 배를 한국의 우수한 선박건조 기술로 건조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조선분야의 협력이 한-인니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 경제협력 증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Nur Syafriadi주의회의장은 PT Tri Karya Alam가 20여 년 간 50여척의 선박을 건조하여 바땀을 포함한 리아우제도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리아우제도에 투자하여 줄 것을 희망했다.

중부 깔리만딴의 지형 상 5천톤 이상의 배가 접근하기 힘든 곳이 많으나 이번에 건조된 Patria Andromeda 1호는 1만 톤급 임에도 수심이 낮은 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다.

앞으로 중부 깔리만딴의 석탄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안녕하십니까?
17대 부인회장을 맡았던 박미례 입니다.

그동안 재 인니 한국 부인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한인 전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부인회의 일원으로 관심을 보여주셨던 한국부인회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재 인니 한국부인회는 17대 부인회를 끝으로 시대의 흐름과 요청(2012년 하반기 운영위원회)에 따라 역동하는 이번 한인회에 일원으로 소속되었습니다.
이번 한인회에 저희 부인회 특유의 섬세함으로 어머니 같은 역활을 보태려 합니다.

끊임없는 관심으로 함께 해주셨던 한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에는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며
여러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요.

17대 부인회장 박 미 례

신간안내>

손은희 작가 두 번째 창작집 '하나님의 퍼즐조각'

재인니한국문인협회에서 활동 중인 손은희 작가가 첫 창작집 '말씀의 샘에서 퍼 올린 행복(2001년)' 에 이어 근 11년 만에 두 번째 책 '하나님의 퍼즐조각' (소망사)을 펴냈다.

자신의 고난 속에서 더 가깝게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이 책은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미래의 아름다운 인생그림을 위해 꼭 필요한 하나의 퍼즐조각입니다' 라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촉구하면서 한 마리 성숙한 나비로 다시 태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갖도록 격려하고 있다. 고난이 삶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행간마다 느껴진다.

현재 한국갓피풀 및 전국 기독교서점 및 교보문고에서
절찬리 판매 중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2012년 12월 15일 그랜드 하이야트 호텔에서 열린 한-인니 경제협력 만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하따 라자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장관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을 수여하였다.

이 행사는 하따 장관을 비롯해 마리 엘까 빵에스뚜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조꼬 끼르만또 공공사업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소피안 와난디 경영자총회(Apindo) 회장, 수르요 밤방 술리스또 상공회의소(Kadin) 회장 등 양 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우방국가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수교훈장 광화장, 수교훈장 흥인장, 수교훈장 숭례장, 수교훈장 창의장, 수교훈장 숙정장 등 5등급으로 구분된다.

한국 대사관은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MP3EI의 주협력 대상국으로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체계(경제협력위 및 T/F 회의, 사무국 설치) 마련,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출범, 2012.11월 제5차 발리민주주의포럼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환경친화적 Green Car 공동생산의 협력에 관한 MOU 체결, 인니 진출 약 1,800여개의 경제활동 및 포스코 등 우리 기업의 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해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하따 장관에게 '수교훈장 광화장' 을 수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선 대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1,800여 한국기업이 백만 명의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기술집약적 녹색 협력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며 "쉽지 않은 것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며 하따장관의 리더쉽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요청하였다.

하따장관은 "한국은 진정한 친구이며, 양국협력 강화에 힘쓸 것" 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제2대 땅그랑 반튼 한인회장 이취임식

지난해 12월 19일 땅그랑 리뽀 까라와찌 피난시아 명가에서 제2대 땅그랑 반튼 한인회장 이 취임식이 있었다.

한인 6.000명을 거느린 땅그랑 반튼 한인회는하반기에 불거진 임금 인상문제로 침체된 교민기업들의 분위기를 생각해 몇 개월 전에 제2기 이 취임식 행사를 골프대회와 교민의 밤 행사로 성대히 치르기로한 원래 계획을 취소하고 간소히 치뤘다.

이날 하연수 회장은 제1기에서 다져 놓은 초석위에 이제는 땅그랑 반튼 지역 한인들의 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계획하여 공감하고 소통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땅그랑 반튼 지역 한인들이 한인회 사무실을 자주 오가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인사회를 만들겠다며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를 당부했다.

이세호 초대회장은 이임사에서 '땅그랑 한인회 우리는 하나' 라는 표어 아래 3년 동안 적극 협조 해 주신 임원들께 감사하고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한인회 발전을 위해 함께 도우며 나아 갈 것을 다짐했다.
신기엽 회장은 한인은 물론 현지인들과도 소통과 나눔을 통해 서로 도와주며 상생하는 한인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새해 메세지를 전했다.

땅그랑 반튼 한인회는 3년 동안 인도네시아 한인회의 모범으로 교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치하하며 제2기를 맞이했다.

문화와 문화가 이어지는 긴 여운...

제3회 인터넷 공모전 시상식 및 문화행사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은 PENDOPO KEMANG의 문화공간에서 '제3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시상식 및 문화행사 '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재외동포재단, 주인니한국대사관, 재인니한인회, 재인니상공회의소, P.T PRATAMA에서 후원했다.

인터넷 공모전은 2010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수십여 편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공모되었고, 그 중 심사위원(시인 박정자, 수필가 서미숙)의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총 17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Harry Darsono 씨의 축하 연주와 "공모전을 통해서 양국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란다" 는 축사로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은 "공모전을 통하여 인도네시아문화에 대한 한인사회의 열정을 느낀다" 고 말했다.

현지인들은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아가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를 그저 스쳐가는 가벼운 인연처럼 대해 왔던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관한 글을 쓴 이효은 씨(주부)의 '부끄러운 초상' 이 대상(주인니한국대사상)의 기쁨을 차지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스스로 노력하면서 외국에서의 삶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써내려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받은 이효은 씨는 "만세!!" 라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결혼기념일에 이런 상을 받게 되어 행복하고, 평범한 주부의 삶에 꺼지지 않은 불을 지펴주신 사공경 원장님께 감사하다" 는 말을 전했다.

일반부의 이효은(대상), 고사순(최우수상), 김동걸, 이채민, 이강락(우수상), 고은희, 이인상(특별상), 이태복, 조갑숙, 이정희(장려상) 10명과 학생부 장한솔(최우수상), 이요한, 김유리, 장인우(우수상), 이건, 김지수(특별상), 박용희(장려상) 7명, 총17명이 수상하였다.

제2회 인터넷공모전에서 '꿈은 살아 있다' 로 대상을 수상한 이동균 씨는 "작년에 대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수필가로 등단하게 되었다" 며 한*인니문화연구원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앙끌룽을 연주하는 긴 여운으로 인니전통문화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정무웅 코린도 장학재단 이사장 대교 눈높이 교육상 수상

대교문화재단 강영중 이사장으로 부터 제21회 대교눈높이교육상을 받고있는 정무웅 코린도 장학재단 이사장

지난해 11월 22일 정무웅 이사장에게 제 21회 대교 눈높이 교육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정무웅 이사장은 JIKS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재단부이사장 직과 코린도 그룹 장학재단 이사장 직을 맡아서 지난 10년간 장학사업 추진과 후원에 힘써왔다. 1997년 코린도 그룹 내에서 장학사업을 신설함으로 그는 장학사업부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는 장학사업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인도네시아 한인 자녀들의 교육지

원 사업과 현지 인도네시아 대학생 장학사업에 본격적으로 전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최근들어 외교, 국방, 경제, 문화, 교육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인도네시아 교육계 및 한인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웅 이사장이 수상한 대교 문화재단이 주최 눈높이 교육상은 초등교육 부문, 유아교육 부문, 중등교육 부문, 특수교육 부문, 글로벌 교육 부문, 재외동포 교육 부문 으로 나뉘어 있다. 한인 사회와 인도네시아 사회의 교육 분야에 헌신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무웅 이사장이 글로벌교육부문 교육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코린도 장학재단은 1997년에 세워졌으며 중점적인 사업으로는 인도네시아현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현지대학교 학생들을 휘한 장학금 지급, 인도네시아대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사업 및 현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JIKS, ACT(아세안교원협의회) 총회 참석

2012년 12월 7일(목)부터 11일(화)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8회 아세안 교원협의회 총회(ACT Convention)가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교원단체(PGRI) 주관 하에 '아세안 공동체 2015 – 양질의 교육과 인류애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ACT 총회는 아세안교원협의회(ASEAN Council of Teachers)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이 참석했으며, 아세안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한국이 참석하였다. 한국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되어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국제 교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총회에는 JIKS(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선종복 교장과 조성백 교사가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한국대표단은 안양옥 교총 회장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UNESCO 한국위원회 등이 참가하였다.

한국대표단은 9일(일) 오전 9시에 Parallel Sessions의 Best Practices에서 JIKS 선종복 교장의 '해외 한국학교의 SMART 교육 추진 방향' 과 조성백 교사의 '자기주도학습의 실천 사례' 를 1시간 동안 발표하여 참가국 교사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번 총회를 통해 아세안 각국 교육계와의 교육협력 및 교원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상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박 용 희(JIS)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은 5년간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 선거는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일인 만큼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물론 이들에게 선거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에 큰 관심을 뒀다. 특히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이하 SNS)의 발달 덕분에 학생들이 정치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었다.이번 대선후보들은 SNS를 활발히 사용했다. 신문과 텔레비전 등 전통적인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던 소식들이 SNS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10대 20대들은 SNS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세대들이다. 정치권의 SNS 사용은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SNS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학생들은 선거기간 동안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선에 관한 자기 생각을 공유했다. 학생들의 이런 활동은 SNS 상의 정치토론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활발히 얘기하며 자신과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다. 정말 가끔은 토론이 원색적인 비판과 상대방 헐뜯기로 변질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학생은 아주 이성적으로 대처했다.

청소년 시기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토론 참여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활동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견해을 들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 것이 항상 옳은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은 개인을 사회에서 고립시킬 것이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도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한다.

학생들은 기성정치에 신물이 나 있었다. 매일 같이 분열되고 싸우는 정치에 혐오감이 생겼다. 혐오감과 불신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정치에 관한 무관심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지켜보고 감시하지 않는 권력은 제멋대로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득만을 챙긴다. 이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국민은 정치에 관심을 둬야 한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는 기존 정치인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국민이 보고 있다는 긴장 아래 자신보다 국민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현재 학생들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세대다. 학생들이 활발한 정치참여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정치에 대한 이념을 성립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정치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들은 정치가 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치는 개인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학생들은 이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정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열심히 참여하여 정치의 주체가 돼야 한다. 소수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개개인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면 사회는 다수의 행복을 생각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랑의 불씨를 키우는 기업

김 성 월 /수필가,방송프리랜서

누군가 나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험과 그들의 생활문화를 이야기 하라면 나는 남자들이 군대 생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겁고 신나게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 할 것이다. 이런 나에게 KIDECO 자카르타 지사장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나의 경험과 특이한 문화를 깔리만딴 오지의 사원들과 함께 듣고 싶다' 는 연락을 받았다.

나에게 있어 오지는 요람이고 고향이다. 오지로 다니는 게 순탄하지는 않다. 먹는 게 마땅치 않아 야자수와 바나나를 먹고 민박하다가 벼룩에 물려 고생하고, 통나무 건너다가 강물에 빠지고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깨어져 열두 바늘이나 꿰매었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살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겪고 나면 어려운 수학공식을 푼 것처럼 마음이 즐겁다. 오지에서의 박진감 넘치고 생생한 현장성을 잘살려 방송으로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잘 보았다고 정말 그렇게들 살아가는지 멘트를 보내올 때 나는 희열과 보람을 느끼며 더 깊은 오지로 갈 궁리를 한다. 나만이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데 어찌 내가 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카르타에서 김태룡과장님과 비행기로 깔리만딴의 발릭빠빤(Balikpapan)으로 갔다. 반년 전 러답버라우에서 발릭빠빤공항까지 자동차로 달린 적 있다. 비가 내려 숲속의 흙길은 눈길처럼 미끄러웠고 지름길이라기에 한밤중에 뗏목을 타고 강물을 건넜다. 차안의 공기가 갑갑하여 눈을 떠보니 조용한 숲속에 차가 서 있었다. 비가 내린 새벽녘 승객들이 숨 막히든 말든 모든 창문을 꼭 닫아놓고 말도 없이 잠자러 가버린 사려(?)깊은 운전기사 때문에 23시간이나 걸렸다. 그런 공항에 다시 도착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발릭빠빤에서

10여분 차타고 그 다음 보트 타고 20분쯤 가다가 자동차로 3시간 더 갔다.

좁은 국도와 넓은 들판을 지나 KIDECO 도착하니 오후였다. 내가 묵는 방이 팀장급숙소라고 했지만 내 경험으로는 인도네시아 사성급 호텔보다 못지 않게 인터넷 통신도 원활했고 안락한 공간이었다. 채탄현장견학을 위해 모처럼 입은 정장을 벗어 던지고 작업복과 안전제일이라는 헬멧을 착용했다. 현장으로 가기 전 광업계의 우수기업 KIDECO 대한 설명을 들었다. 광구면적은 50.921Ha 광량(가채량과 매장량)은 1,665 백만 톤과 채탄프로세스와 설명을 듣는데 신기하기만 했다. 현장에서 PIT(채탄현장)전경을 보니 검은 줄이 길게 늘여져 있는 게 석탄이라고 박상봉부장님이 설명했다. 석탄과 흙으로 겹겹이 쌓인 지층을 보는데 내 눈에는 꼭 쌓아놓은 팥시루떡을 잘라 놓은 것 같았다. 그때서야 나는 깔리만딴 동북쪽으로 비행기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화산분화구 같은 곳이 여러 개 있었다. 저게 뭘까 궁금했었는데 그게 바로 채탄작업 현장이라는 수수께끼가 풀렸다. 여러 곳의 PIT 중에서 가장 넓은 PIT는 1.400Ha나 되었다.

채탄작업현장에서 나뭇결무늬가 보이는 원탄 한 덩이를 들고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석탄이라니 신기해서 만지고 던져보고 아마도 과일이었다면 내 성격에 먼지를 작업복에 쓱쓱 닦고 한 입 베어 물었을지도 모른다. 채탄작업으로 인해 퍼다 나른 흙더미에 나무를 심으니 울창한 숲을 이루어 동산이 되어 있었다. PIT 현장에서 파쇄시설에 거쳐 외항까지 내륙과 해상운송거리를 합치면 약 100km 먼 거리였다. KIDECO 전용도로는 연장 39km 폭 20m 그 중에서 4km 왕복 4차선 도로의 이름이 Jl. KIDECO였다.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가 바로 SUKU KIDECO 지역이네요." 라고 말했다. 2011 & 2012년 "Gold Flag" 인도네시아 환경등급 수상내역으로 중앙정부(환경부)의 (광업계 최고등급)과 주 정부(Kalimantan) 최고등급을 수상하였다. 사회공헌활동(GKPM) 34 참가 기업 중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밖의 CSR 활동(지역사회 공헌)면에서도 후생복지와 병원, 사원, 교육 등 항목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장을 다니다가 초등학교가 있어 방문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때마침 체육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어 나는 불러 모았다. 그리고 말했다. "자 누가 강남스타일 춤 출 수 있는 사람?" 하고 묻자마자 "오빤 강남스타일" 하면서 아이들이 말 춤을 췄다. 이렇듯 나는 인도네시아 낯선 오지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 할 때 나는 신난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 분들이니까, 그들이 모르는 인도네시아 이야기도 좋지만 동영상까지 보여주면 흥미로워할 것이다.
나의 늘 입던 교복 같은 청바지와 T셔츠 대신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움켜잡고 이런 서두를 꺼냈다. 석탄을 채탄하는 기업이라기에 안도현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시 낭송을 어설프게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박수를 치기엔 너무 과묵한 지식인들이라서 그런지 별로 반응이 없었다. 나는 한 번 더 시구절을 응용하였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지만 저는 이렇게 멋있는 미남들과 한꺼번에 데이트 하려고 7년 동안 오지로 다니면서 가무잡잡한 남자들만 만났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김달수대표이사님이 "박수" 하며 손뼉을 치자 다른 45명의 사원들도 박수를 쳤다. 그 제사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지도를 펴놓고 내가 다녀 온 곳을 짚어가면서 그곳의 특이한 전통문화와 지금도 볼 수 있는 그들만의 생활모습을 이야기해 나갔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약자, SUMUT 은 Sumatera Utara 수마트라 북부의 공식적인 약자이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속담처럼 통용되는 말 'SUMUT = Semua Urusan Mesti Uang Tunai 모든 일은 현금으로!' 일에 얽힌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발리 옆의 롬복섬의 수상시장에서 어부들이 잡은 상어를 아줌마가 머리에 이고 가고 또 식인상어를 두 사람이 메고 가는 영상을 보고 모두들 웃음이 빵, 터졌다.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많이 들려주고 싶었으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다 전하지 못해 아쉬웠다. 그분들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한 간접경험이 되길 나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강연을 마쳤다.

떠나올 때, 점심식사 하러 식당에 들어갔다. 열 가지 넘는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어 음식을 접시에 담으려고 뚜껑을 여는데 그릇에서 반짝반짝 내 얼굴이 비쳤다. 어제 저녁식사도 자카르타 한국 식당 못지않게 푸짐하고 맛있게 먹고 식당 옆 골프연습장과 풋살구장도 산책했었다. 마음이 편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기업 KIDECO에서 보낸 1박 2일은 나에게 아주 뜻 깊은 1박 2일이었다.

김달수대표이사님과 최병현지사장님 그리고 KIDECO 가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뱀

〈계사년 특집〉

뱀은 극지를 제외하고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데, 한대지방에는 종류 수가 적고 온대지방에서 열대지방으로 갈수록 종류 수가 증가한다. 전세계에는 13과 3,0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3과 16종이 서식하고 있다.

뱀은 몸이 길고 사지가 퇴화하여 복린(腹鱗)과 늑골(肋骨)의 운동으로 몸통을 이동시킨다. 뱀의 껍질은 각질로 된 비늘로, 머리에는 좌우대칭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종에 따라 그 모양과 수에 차이가 있어 분류학상의 특징이 되고 있다.

등면은 작은 비늘로 이루어지고, 배면은 큰 비늘이 1열로 배열되고 있으나 꼬리 부분은 쌍을 이루고 있다. 매년 1회 이상 탈피하며, 만약 탈피하지 못하면 각질화되어 자연사하게 된다(방울뱀 꼬리의 방울은 꼬리 끝에 1개의 비늘이 탈피하지 않고 각질화한 것이다).

탈피할 때에는 탈피 2주 전에 몸 전체의 광택이 없어지고 눈 위의 투명막도 반투명하게 된다. 탈피 직전에는 다시 광택이 나며 신구 2층 사이에 지방질이 생긴다. 더욱 현저한 것은 내부의 새로운 껍질에 미세한 섬모가 생겨 껍질은 머리에서 꼬리 끝까지 깨끗하게 탈피된다.

눈에는 눈까풀이 없으며 안구 전면에 시계유리와 같은 투명막이 있어서 눈물은 전면으로 흐르지 않고 안구도 움직이지 않는다. 야행성인 뱀의 동공은 타원형이다.

혀는 가늘고 길며 끝이 두 갈래인데, 주위의 환경이 달라지면 시종 입 밖으로 내고 날름거리지만 보통 때에는 입속 혀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 혀는 대단히 민감하여 먹이(쥐나 개구리)가 지나간 자국을 혀로 더듬어 먹이가 숨어 있는 곳까지 찾아간다.

골격은 사지가 없는 대신 특이한 적응형태로 두골의 전악골(前顎骨),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비골(鼻骨), 구개골(口蓋骨)은 모두 가동적(可動的)으로 상관절(相關節)이 되고 있다.

또한 하악과 두골 사이에는 큰 방골(方骨)이 있어 이것에 의하여 하악이 두골에 매달려 있다. 뱀의 이는 바늘과 같이 뾰족한데 악골뿐만 아니라 구개골과 익상골(翼狀骨)에도 입 안쪽을 향하여 배열되고 있다.

특히 좌우 양쪽 악골이 전방에서 고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좌우 악골이 교차로 움직일 수 있어서 자기 몸의 직경보다 큰 먹이가 입에 들어가면 식도 쪽으로 밀려가게 된다. 척추골(脊椎骨)은 수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비단구렁이는 300개 이상에 달한다. 각 척추골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연접되어 몸통의 좌우 파상운동이 가능하다.

각 척추골에는 제1경추(第一頸椎)를 제외하고 제2경추부터 꼬리 부분까지 각 추골에 1쌍의 조골이 붙어 있으며, 조골 끝은 인대로 복린(腹鱗)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골이 전후로 움직임에 따라 복린은 기복이 생겨 땅을 뒤쪽으로 밀게 되고 몸이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동시에 몸을 좌우로 파상운동을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폐(肺)는 좌우 1쌍이 아니라 좌측폐는 퇴화되고 우측폐가 몸의 길이에 따라 길게 위치한다. 폐는 극히 얇은 막으로 구성된 주머니로 그 전반부만이 호흡에 사용되고, 후반부는 조류의 기낭(氣囊)과 같이 공기를 저장하고 있다.

교미기관(交尾器官)도 특수하여 수컷은 총배설강의 좌우에 1쌍의 반음경(半陰莖)으로 끝이 둘로 갈라지고 주위에는 각질로 된 침상(針狀)의 돌기가 있다. 뱀은 대부분이 난생이나 살모사속과 무자치는 난태생으로 수란관(輸卵管)에서 발생되어 새끼로 낳는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뱀은 우리 설화 속에서 주로 인간을 해치려는 사악한 존재로 등장한다. 강원도 치악산에 있는 상원사(上院寺)의 연기설화(緣起說話)도 뱀이 인간을 해치려다 실패하고 만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나무꾼이 두 마리의 꿩이 뱀에게 잡혀 먹히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뱀을 죽여버리고 살려주었다. 그날 밤 산 속의 어느 집에서 젊은 여인을 만나 대접을 받으며 자게 되었다.

한밤중에 눈을 떠보니 큰 뱀이 자기의 몸을 친친 감고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여인은 뱀의 화신으로 죽은 남편 뱀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었다. 그 때 어디선지 종소리가 울려왔고 뱀은 도망을 가버렸다.

이튿날 종소리가 난 곳을 찾아가 보니 퇴락한 종루에 꿩 두 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다. 이 자리에 절을 세우니 그것이 오늘날의 상원사이다.

또 탐욕하거나 호색한 인간이 죽어 뱀으로 환생한다는 설화도 전해지고 있다. ≪용재총화, 齋叢話≫에는 한 승려가 죽어 뱀이 된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진광사(晉光寺)의 승려가 시골 여인을 아내로 삼고 몰래 밤마다 출입하다가 마침내 죽었다.

죽은 중은 아내를 못잊어 뱀으로 환생하여 낮에는 독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면 아내와 동침하였다. 이 사실을 안 마을의 사또가 뱀을 궤짝에 넣어 물에 띄워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절에서는 탐욕하거나 게으른 중이 뱀으로 환생하여 절 근처에 살면서 다른 중의 본보기가 된다는 전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뱀은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제주도에는 뱀이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 濟州風土錄≫에 그 같은 기록이 보인다.

"뱀을 신으로 숭배하여 죽이지 않으며, 뱀이 보이면 술을 뿌려 물러가게 하고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자는 뱀이 보이기만 하면 죽였더니 지방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저 사람은 다른 지방 사람이니 저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끝내 뱀을 죽여야 마땅함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주에는 본래부터 뱀이 많은 곳이라고 들은 바 있지만 그 많은 이유는 풍토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위하여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건(李建)의 ≪제주풍토기 濟州風土記≫에는 "풀이 무성하고 습기가 많을 때는 뱀이 규방이나 처마 마루밑 자리 아래 어디에나 기어 들어와 잠잘 때 피하기가 어렵다.

섬 사람들은 뱀을 보면 '부군신령(府君神靈)'이라 하여 쌀과 정수와 술을 뿌리면서 빌고 죽이지를 않았으며, 만일 뱀을 죽이면 재앙이 내려 발꿈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는다고 알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뱀을 신성시하여 조선시대에는 수경면 고산리의 차귀당(遮歸堂), 대정읍의 광정당(廣靜

堂) 등 많은 당이 사신(蛇神)을 숭배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사신에 대한 신앙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뱀이 들어와도 그 뱀을 거칠게 함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안주할 곳으로 들어가기를 권유한다. 또 어린이들이 뱀을 보았을 때 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손가락이 썩는다고 믿게 함으로써 손가락질을 못하도록 한다.

가정에서 기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에서 모시고 있는 신위와는 별도로 '안칠성'이라 해서 사신을 위한 제상을 설비하기도 한다. 특히 표선면 토산리 지역에서는 세습적으로 뱀신에 대한 신앙이 전해지고 있다.

이 신앙은 여계(女系)로 전해지는 것으로 이곳 여자가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도 반드시 뱀신을 모시고 가야 한다. 따라서 이 지방 여성들은 결혼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뱀신은 보통 여신, 특히 '할망'으로 모셔 받들어지고 있다. 뱀신의 신체는 수목 , 암석 , 신의(神衣) , 신기(神旗)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여드렛당'이라 불리어지는 암석이나 수목의 형태로 나타나는 속칭 괴 [0x956d] 라는 구멍이다.

뱀은 정력강장제로 알려져 있어서 뱀을 전문으로 잡는 땅꾼과 뱀탕집이 성행하고 있다. 뱀탕집은 뱀을 산 채로 항아리에 넣고 이것을 푹 고아 보자기에 짜서 국물을 마시게 하고, 또 뱀술을 만들어서 파는 집이다.

땅꾼은 1950년 이전에는 가장 하층에 속하는 직업으로, 뱀을 잡으러 나가면 민가에서도 잘 수 없어 큰 다리 밑에서 숙식을 하면서 뱀을 잡았다.

뱀을 먹는 사람도 폐결핵 환자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땅꾼의 수도 극히 적어 속리산과 덕유산 지방에 단 2명뿐이었다. 6.25전쟁 이후에 생활이 안정되면서 다리 밑에서만 영업을 하던 뱀탕집이 시내의 번화가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뱀이 정력강장제로 선전이 되며 뱀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 급속도로 뱀탕집이 증가하였다.

1960년까지도 약용으로 사용하던 뱀의 종류는 살무사 3종과 구렁이, 능구렁이에 국한되었던 것이 1965년부터는 뱀이라면 모두 뱀탕집에서 사들이게 되었다.

아울러 과거와 같은 땅꾼은 없어지고 산골에서 약초를 캐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남자들은 산에서 뱀만 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생포하여 집으로 가져와 큰 항아리 속에 넣어 두고 이 뱀을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넘기고 있다.

1980년 이후에는 태국과 대만에서 코브라와 줄꼬리뱀까지 수입하여 뱀탕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뱀에는 각종 기생충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한국동식물도감　제17권－동물편－(강영선,윤일병, 문교부, 1975)

한국민속대관　6(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2)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속담으로 재미있게!
BAHASA INDONESIA

박 정 자 / 시인

1. Hati bagai baling-baling. 사람의 생각은 늘 변한다. 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모든 일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듯이 변한다는 말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문제는 변하지 말아야할 것이 변하는 것, 변해야할 것이 변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인데... 묵은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하는 새해의 마음 변화는 분명 희망적인 변화죠?

단어의 뜻과 예문>

hati : A. ① 가슴, 심장; ⓢjantung
② 마음, 정신, 감정, 기분; ⓢbatin, perasaan, nurani, isi
B. 조심하는, 조심스러운, 조심성 있는; ⓢwaspada, awas
-hati emas 친절한, 호의적인; ⓢbaik hati
-hati kecil 느낌, 내심/ Hati kecil saya mengatakan dia pasti akan datang.(그가 분명히 올 것 같은 느낌이다)
hati nurani 양심, 진심
hati terasa panas 마음이 아프다, 화나다
hati-hati 조심하는, 조심스러운, 조심성 있는

bagai : ① 종류/ Tiga bagai mobil(세 종류의 차)
② 동등한, 대등한; ⓢbanding/ Gunung itu indah sekali, tidak ada bandingnya.(그 산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다)
③ ~와 같은; ⓢseperti/ Penerangan di kamar ini terang, bagai siang.(이 방은 낮처럼 밝다)
bagai-bagai 여러 종류의, 각양각색의; ⓢberjenis-jenis, berupa-rupa/ Berbagai-bagai bahasa terdapat di kota itu.(그 도시에서는 여러 종류의 언어가 발견된다)

baling-baling : 바람개비, 프로펠러, 추진기

2. Kais dulu maka makan. 일을 하고 먹어라(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제 주위에는 놀 때를 일할 때처럼 하고 일할 때 놀 때처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겠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겨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먹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지 말고 일하기 위해, 잘 놀기 위해 먹는다고, 생각을 바꾸어 무슨 일을 하든 즐겁게 합시다!

단어의 뜻과 예문>

kais(=mengais) : (먹이를 찾기 위해) 후비다, 긁어 파다; ⓢmencakar, menggaruk
mengaiskan (땅을) 긁어 구멍을 내다

꽃향기처럼 좋은 냄새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주고 무언가 썩는 것처럼 나쁜 냄새는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향기가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갓 구운 빵의 달콤한 냄새, 갓 볶은 커피의 고소한 냄새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올해는 서로서로 좋은 향기를 나누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패가 아닌 발효의 향기로 행복을 부풀리는 달콤고소한 2013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냄새 bau / 향기 aroma, harum, wangi / 악취 hancing, maung)

dulu : 먼저, 예전에(dahulu)
duluan 먼저/ Ayolah duluan.(먼저 하시죠), Minta maaf saya duluan.(먼저 가서 미안해요), dulunya 이전에는, 원래는, 한때는, 옛날에는

maka : 그러므로, 그래서; ⓢdan, lalu, sesudah itu, karena itu, sebab itu, oleh itu, bahwa/ maka dari itu(그러므로)

makan : ① 먹다/ Anak itu suka makan pisang (그 아이는 바나나를 즐겨 먹는다)
② 소실시키다, 태우다; ⓢmerusakkan, rusak, terbakar, aus/ Foto itu sudah dimakan api.(그 사진은 이미 불에 태웠다)
③ (시간이)걸리다, 소요되다; ⓢmemakai, memerlukan, menggunakan, menghabiskan/ Makan waktu 3 jam.(3시간 걸렸다)

3. Kacang tak akan lupa junjungannya.
성공을 한 후에도 예전의 어려움을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tak akan lupa asalnya). 어려웠던 날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말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단어의 뜻과 예문>
kacang : 콩, 땅콩, 콩과의 식물
kacang buncis 강낭콩 / kacang tanah 땅콩
kacang hijau 녹두 / kacang ijo(=kacang polong)완두콩
kacang-kacang 작은 탄알, 우박, 둥근 베어링

tak(tidak) : ~이 아니다, ~하지 않다

akan : (단순미래)~할 것이다(미래형부사); ⓢbakal/ Saya pun akan ke sana.(저도 그 곳으로 가겠습니다)

lupa : (사고, 생각 등) ① 잊다, 망각하다, 잊어버리다; ⓢlalai, tidak ingat, tidak sadar/ Saya sudah lupa.(저는 이미 잊었습니다)
lupa akan dirinya 무의식의, 정신이 없는, 기절한

junjungan(nya=itu) : ① 숭배
② 존중
③ 남편
junjung ① 머리에 이다, 머리로 나르다 (menjunjung)
② (명령, 지시에)순종하다, 따르다; ⓢmenurut, menaati

우리 땅의 발자취
한반도의 역사
때론 바다로 때론 공룡낙원, 불화산으로…
20, 30억년 세월 묵묵히

"적도 부근서 북으로 북으로… 2억년 전 지금 위치로"

46억년이라는 지구의 역사 속에서 유라시아 대륙 동부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나온 땅 한반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풀어가는 단서는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출현한 것은 길게 잡아야 3백만년 전,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5,6천년 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가 변화해온 발자취, 즉 '지사'는 땅 그 자체에 기록돼 있다. 지구상에 생물이 본격적으로 출연한 고생대 이전의 경우 그것은 암석 그 자체에, 그 이후는 주로 암석과 그 속에 들어있는 화석에 기록돼 있다. 한반도는 비록 땅 덩어리는 작지만 20~30억년의 오랜 나이를 가진 선캄브리아기 지층에서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이르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다양한 지질을 갖고 있다.

전 국토의 5분의 3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기반암인 선캄브리아기의 암석은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 재 결성된 변성암이다. 이들 대부분은 바다에서 형성된 퇴적암이 변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고생대이전(5억7천만년 이전)의 한반도는 육지가 아닌 바다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바다였다는 것만 분명할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역사는 현실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페름기에 육지로 드러나

이런 상태는 일시적인 변동은 있었지만 고생대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를 거쳐 석탄기까지 계속됐으며 페름기에 들어 바다가 물러가면서 비로소 육지로 드러나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석탄기까지 한반도가 바닷속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영월, 태백 등의 고생대 초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삼엽충 화석과 강원도 남부와 단양, 문경지역에 쌓여 있는 석회암 층이다.

이후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했던 중생대 쥐라기(2억8백만년 전~1억3천5백만년 전)에 들어서는 대보 조산운동으로 불리는 지각운동에 의해 소백산맥 등 습곡 산맥들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규모의 호수들도 생겨났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일본을 훨씬 능가하는 맹렬한 화산 폭발이 계속돼 화상의 시기이기도 했다.

이들 공룡이 번성하던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격렬한 화산활동의 흔적은 경북 영양에서 의성~군위~청송~대구와 영천~청도~밀양~거제를 거쳐 남해안을 따라 충무~남해~여수~고흥~장흥~장진~완도~해남~진도로 활모양 형태로 휘어지면서 이어져 있다. 한반도에 화산 활동이 격렬했던 원인은 당시 한반도와 일본은 붙어있었으며 태평양지판이 대륙지판 아래로 밀려들어 가면서 생긴 균열 등으로 지각이 불안정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위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척추' 태백산맥 솟아

이런 과정을 지난 뒤 한반도에 척추가 만들어 졌다. 태백산맥이 솟아 오늘날 볼 수 있는 동고서저의 한반도 지형은 신생대의 산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원래부터 현재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대륙이었을까.

한반도가 지금의 형태로 자리잡은 것은 전체 역사에서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며 원래부터 하나의 대륙이었던 것도 아니다.

또 80년대 후반까지는 한반도가 북중국 대륙의 일부로서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여 왔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인 학설이었으나 이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증거는 불충분하여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는 한반도의 지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문제인데도 임진강대가 남북한의 군사 분개선에 위치해 연구가 크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자연사 기행, 한겨레 신문사—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모나스 (MONAS)로 잘 알려진 국립기념탑 (MONUMEN NASIONAL)

132미터의 높이를 자랑하며 하늘로 힘차게 솟은 국립기념탑(MONUMEN NASIONAL)은 독립광장 정중앙에 위치한다. 젊은 자카르타와 독립의 존엄함이 느껴지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품위를 더한다. 기념비를 지탱하는 잔 모양의 사각 받침부분은 지상 17미터 (독립기념일 17일)에 위치해 있으며 가로 세로 모두 45미터(45년)이다. 모나스(MONAS)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탑의 정상에서 타오르고 있는 금으로 덮인 '꺼지지 않는 불 (Api Nan Tak Kunjung Padam)' 이다. 이 횃불은 국가의 권위와 독립을 쟁취하고자하는 인도네시아인 들의 불타는 열정과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동안 네덜란드 식민지배에 투쟁한 결과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포했다. 독립정부가 수립되자 이를 기념하고 국민의 존엄성과 문화의 동질성을 지키고, 다음세대에게 독립투쟁의 위대함과 애국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가기념지를 만들어 관광대상으로 정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역사

혁명투쟁 당시 족자(1946년 임시정부)에 있던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중앙정부를 자카르타로 다시 옮긴 후 수카르노 초대대통령은 에펠 탑만큼 높은 탑을 건립할 생각을 하였다. 1954년 위원회

가 창립되어 1955년 모나스 디자인을 공모하였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잘 묘사하는 Frederich Silaban(실라반)의 디자인을 뽑았으나 수카르노는 디자인이 너무 우아하여 비용문제로 반대하였다. 더구나 당시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평범한 디자인을 싫어하는 실라반은 디자인을 바꾸지 않고 경제가 좋아질 때 다시 도전하리라고 생각하였다. 반대하는 수카르노가 R. M. Soedarsono (수다르소노) 건축가를 불러 실라반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독립일 1945년 8월 17일 (17, 8, 45) 숫자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제안하였고, 실라반과 수다르소노의 지도 아래 넓이 80헥타르인 모나스 건립이 16번째 독립 기념일인 1961년 8월 17일 시작되었다. 국민들이 협동, 단결했다는 의미로 많은 시민들이 낸 기부금으로 건립되었으며. 방첨탑(obelisk)은 1963년 8월 건립되었고, 1969년부터 1976까지 지하 역사박물관에 디오라마를 만들었다. 마침내 1975년 7월 12일 모나스 기념탑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인니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었으며. 수하르또 대통령이 준공식을 올렸다.

모나스가 독립광장(Taman Merdeka)에 세워진 이유는 이곳이 자카르타의 중심이며, 일본의 무력위협에 직면했을 때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회의 라빵안 므르데까(Lapangan Merdeka)가 1945년 9월 19일에 바로 이곳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모나스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이곳은 역사의 중심지였다. 네덜란드 식민지 당시에는 '코닝스플레인(Koningsplein)'이라 불렸으며, 매년 8월 31일 네덜란드 여왕의 생일 축하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였다. 일본 식민지 당시에는 ' 키코 히코바 (Kiko Hikoba)'라 불렸으며 인도네시아인 들에게는 '감비르 공원'이라고 불린다. 이 광장은 워싱턴 광장을 모델로 하였다. 부근에 정부 청사가 있으며, 국경일이나 국가행사의 출발지이며 특히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민의 휴식처이다. 모나스가 서 있는 이 지역은 메단 므르데까 (Medan Merdeka)라고 불리는데, 역사를 보면 현재 Taman Monas라고 불리는 이 광장은 명칭이 5번이나 바뀌었다. 즉 Lapangan Gambir, Lapangan Ikada, Lapangan Merdeka, Lapangan Monas이다.

모나스 탑의 건축

모나스의 수직의 탑과 수평의 받침대의 대비는 음양 곧 선과 악, 밤과 낮, 남자와 여자를 뜻한다. 즉 링가 (Lingga)와 요니 (Yoni)란 영원한 남녀의 관계를 상징한다. 높이 치솟아 있는 방첨탑이 남자를 상징하는 링가이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남성 요소와 낮을 상징한다. 한편, 방첨탑을 받친 술잔 모양의 받침부분이 여자를 상징하는 요니이며, 수동적이고 조용한 여성적 요소와 밤을 상징한다. 비옥과 조화로운 통일을 상징하는 링가와 요니는 인도네시아 선사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다. 이 외에, 모나스 탑이 인도네시아 전통 농부의 가정에서 많이 보는 방아(alu)와 절구통(lesung)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나스 탑은 인도네시아 문화가 지니는 특성으로 가득하다. 상단부와 하단부의 각각의 모서리는 8개(8월)이며, 에워싼 철재 대나무 모양의 담장은 식민체제에 대항한 민중들이 게릴라전 때 사용했던 죽창을 상징하며, 처음에는 독립한 해(1945년)를 상징하여 1945개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담장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수가 변하기도 했다.

모나스의 북쪽 방향에 25m x 25m 넓이로 된 연못이 모나스 정원 (taman monas)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졌다. 분수 가까이에 말을 타는 달리는 디뽀느고로(Diponegoro) 왕자의 동상도 있다. 동상 가까이에 바로 모나스 탑으로 가는 입구가 있다. 3미터의 지하터널 끝에 매표창구가 있다. 모나스 북쪽에는 인도네시아 투쟁 역사를 그리는 양각을 볼 수 있고, 동북 입구를 통해서 국립 역사박물관으로 들어가거나 중앙에 있는 '독립 방(ruang kemerdekaan)에 가거나, 아니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모나스 탑의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다.

국립 역사박물관 (Museum Sejarah Nasional)
모나스 기념탑의 3미터 지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 역사박물관에는 사방 벽면에 48개의 투시화 (디오라마:diorama)와 중앙에 3개의 디오라마(총 51개)가 전시되어 있다. 긴장감 넘치는 거대한 역사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지하박물관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가로 세로 80미터이며 높이는 8미터 (8월)이다. 인도네시아의 선사시대와 부터 항해시대, 인도네시아 고대 불교왕국 스리위자야(Sriwijaya) 시대, 마자빠힛(Majapahit) 왕국을 포함한 힌두왕국 시대, 약소민족의 비애를 생각하게 하는 유럽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식민지 시대, 일본의 점령, 처절한 독립혁명시대, 아시아 아프리카 반둥 회의, 수하르또(Suharto) 대통령이 다스린 새 시대, 1975년 인도네시아에 합병된 동티모르, 1995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행기 제작 회사인 IPTN에서 순수 인도네시아 기술로 N250을 만드는 것까지의 역사가 숨 가쁘게 펼쳐진다.

2층 독립 방 (Ruang Kemerdekaan)

지상에서 2층으로 향하는 17개의 회전계단 올라가면 원형 극장(amphitheater) 스타일로 중앙 벽이 짙은 초록색 이태리 대리석으로 꾸며진 중앙홀(모나스 탑의 받침부분의 내부)이 나온다. '독립 방' 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대리석 특유의 매력으로 심오하기 까지 하다. 독립 홀 <동쪽 벽>에는 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 때 게양했던 국기 상 사까 메라 뿌띠 (Sang Saka Merah Putih;붉은 색은 정열 · 투쟁, 흰색은 순결)가 전시되어 있었으나, 그 국기가 낡았기 때문에 지금은 청동으로 된 독립선언 원고로 교체되었다. <북쪽 벽>에는 금으로 덮인 수많은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공화국 지도, 누산따라 군도가 넓게 펼쳐져 있다. 재미있는 것은 독립된 동티모르에 해당하는 금박을 누군가가 가져가 한 동안 지도에 없었으나, 지금은 복원해 놓았다.
<서쪽 벽> 바로 중앙에는 '독립 정문 (gerbang kemerdekaan)' 으로 알려진 엘리베이터 모양의 독특한 문이 있다. '국가를 위해서 (Padamu Negeri)' 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서 국화 melati(쟈스민) 문양이 있는 문이 서서히 열리고 젊은 수카르노의 독립선언과 유리 장에 보관된 독립선언문의 원본이 드러나면 숙연한 기분이 든다. 맞은편의 계단식 관람석에 앉아서 이 장면을 감상하는 것도 독립할 당시의 비장한 결의를 느낄 수 있는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이다.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것 같다. '쇠사슬의 벽속에서 뛰쳐나와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 고. 연도가 일본 황기(皇紀)로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장 Garuda Pancasila>

남쪽 벽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져 금으로 덮인 3.5톤의 인도네시아 공화국 문장인 가루다 빤짜실라 (Garuda Pancasila) 상이 위풍당당하게 날개 짓을 하고 있었다. 가루다가 가슴으로 방패를 안고

두 다리로 국가의 염원을 옹위하고 있다. 가루다는 창조의 신 위스누 (Wisnu)가 타고 다녔던 시공을 초월한 새다. 방패는 국가를 방어한다는 뜻이며 가운데 검은 가로줄이 지나가는 것은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말루꾸에 적도가 지나가는 것을, 동시에 적도상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 인도네시아를 나타낸다. 가루다 목 부분의 삼각 깃털은 45개, 몸통의 끝 부분의 삼각 깃털은 19개. 양쪽 날개는 각각 17개씩의 깃털이 있고, 가루다 발이 꽉 잡고 있는 Bhinneka Tunggal Ika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뜻하며 그 밑의 깃털 수는 8개다. (1945년 8월 17일을 상징)

중앙의 문양은 5대 건국이념(Pancasila)을 나타낸다. 중앙의 별은 신앙의 존엄성, 사각과 원모양의 고리(남성과 여성 상징)는 인간의 존엄성. 신성한 나무인 브링인 (beringin)은 통일 인도네시아, 물소 머리 형상은 대의제도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 쌀과 목화는 국민을 위한 사회정의를 의미한다.

탑의 정상 및 독립 불 (Api Kemerdekaan)

엘리베이터(50명 수용)를 타고 3, 4초만 지나면 115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가로 세로 11미터의 전망대에 도착하는데, 전망대는 상당히 대중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모나스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열려있는 독립광장이 선명하게 보이고, 아무리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도 이곳에 오면 동서남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광장의 북쪽에 대통령궁 (Istana Negara)이 보이고 서쪽에는 국립 박물관도 보인다. 남쪽에는 정부청사와 국립항공사인 가루다 건물이 보이고, 북동쪽에 Istiqlal Mosque, Catholic Cathedral, 석유회사 Pertamina 건물도 보인다. 동쪽에는 임마누엘 교회, 보이 스카우트 건물, 국영 방송국 RRI(Radio Republik Indonesia) 건물도 보인다. 맑은 날씨에는 남쪽으로 보고르 (Bogor)에 있는 살락 산(Gunung Salak)이 보이고, 북쪽으로는 작은 섬으로 꾸며있는 Pulau Seribu 바다를 볼 수도 있다. 바람 부는 날은 기념비를 지탱하는 2층 받침 부분에서 자카르타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것도 좋다. 이곳에서 보는 자카르타는 여느 곳과는 다른 느낌으로 젊은이들을 드넓은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들뜨게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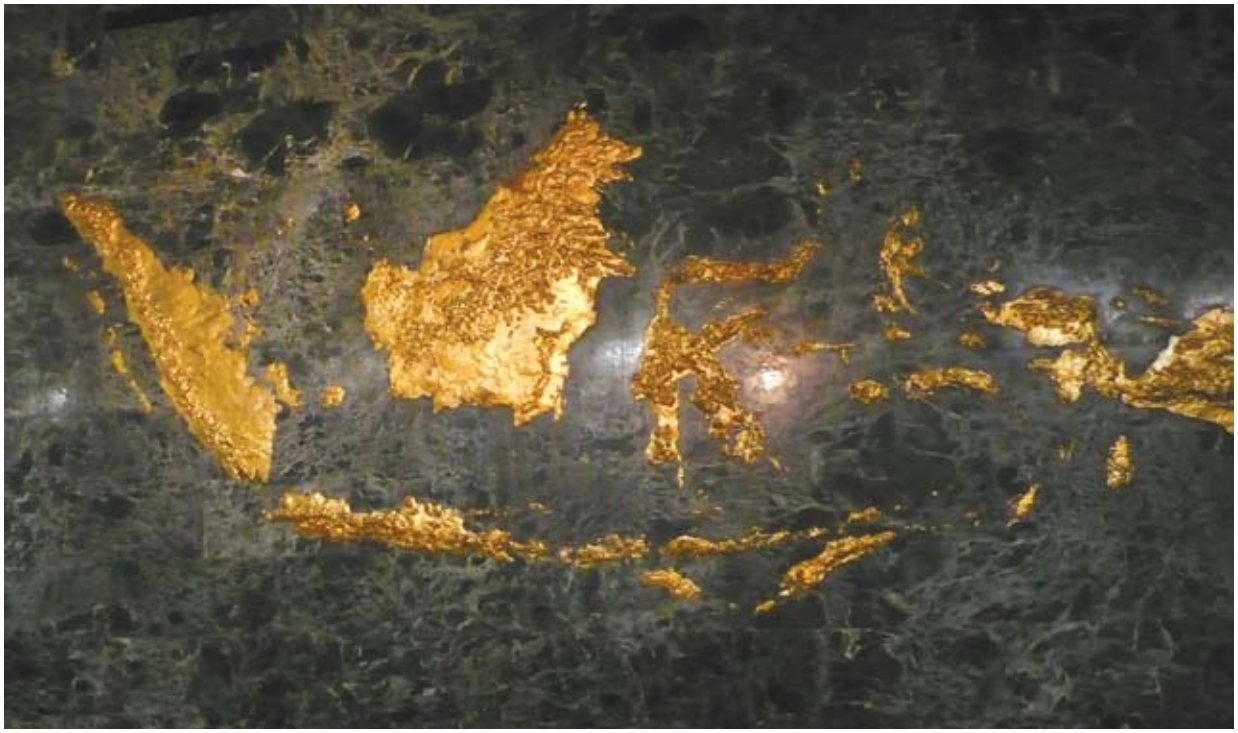
원뿔 모양의 횃불은 35킬로그램의 금을 14.5톤의 청동접시 위에 도금한 것인데, 1995년 독립 50주년을 맞아 15킬로그램을 더하여 50킬로그램이 되었으며 높이가 14m이며 지름이 6미터이다. 금중에서 30킬로그램은 인도네시아에서 최고 부자였던 아체 (Aceh)인 뜨꾸 마르깜 (Teuku Markam)이 기부한 것이다. 횃불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132미터이며, 바로 탑의 정상이 된 꺼지지 않는 불은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투쟁 정신은 저 횃불처럼 우뚝 서서 계속해서 타는 것을 뜻한다. 인도네시아 인들은 지금도 부활을 꿈꾸며 가슴 속의 불꽃도 함께 타고 있으리라.

1945년 9월 19일 기념물

1945년 9월 19일 기념물은 IKADA (자카르타 체육회)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현대식으로 건립된 이 기념물의 받침은 19x19미터, 받침 높이 4미터, 사람 조각상 5미터이다. 숫자를 다 포함해서 1945년 9월 19일을 상징한다.(4+5=9, 받침너비 19)

이 동상은 관련되는 투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군중을 상징하는 다섯명의 사람이 메라뿌띠 국기를 흔들며 "Merdeka" 라고 함성을 지르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기념물의 받침은 다시 7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데 이는 민족주의, 애국심, 영웅적 자질, 투쟁의 정신, 협동, 성실함, 자긍심 같은 투쟁의 기본 가치를 표현한다.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을 한 뒤에도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연합군 명목으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며 지배하려고 하였다. 모든 것이 확실치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젊은이들은 멘뗑 31번지에서 코미터 반 악시라는 이름으로 투쟁의 대열을 갖추었다.

그 후 그들은 민중의 힘을 보일 수 있는 정치 운동을 계획했으며, 이 운동은 체육대회 날 이까다(모나스) 광장에서 행하였으며, 일본 군인의 감시 하에 수카르노가 연설을 했다.

이와 관련되는 사건으로는 같은 날 (1945년 9월 19일), 수라바야에서 인도네시아 민중들이 네덜란드를 공격해 네덜란드 국기인 홍백청 깃발의 청색 천을 찢어 버리고 홍백 깃발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1주일 전 RAPWI (연합군)이 인도네시아에 착륙했다. 그들은 수라바야에 있는 야마또 호텔(Hotel Yamato)에 주둔지를 세웠다. 네덜란드가 연합군의 이름으로 인도네시아를 다스리겠다는 표시로 이 호텔에 국기를 게양하였다.

이에 수라바야 민중들은 야마또 호텔을 공격하여 인도네시아 국기, Merah Putih를 게양한 것이다. 그들은 "Merdeka, Merdeka(해방하다. 독립하다.)" 라고 외치며 절규하였다. 이 위대한 투쟁은 누산따라로 넓게 퍼져나갔다.

디뽀느고로 (Pangeran Diponegoro)왕자 동상

광장의 북쪽에 자바 독립 전쟁의 영웅, 디뽀느고로 왕자가 힘차게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의 동상이 있다. 청동 8톤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상은 1965년 이태리 조각가 Cobertaldo가 만들었다. 인도네시아를 아주 사랑한 이태리 영사이며 재벌인 마리오 피토 (Mario Pitto)는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이 동상을 기증하였다.
디뽀느고로 왕자는 족자의 인구를 반으로 줄게 한 자바전쟁 (1825년~1830년) 때 네덜란드에 맞서 용감히 싸웠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바따비아 감옥에 갇혔다가 추방당해 술라웨시 마나도(Manado)에서 세상을 떠난다. 혁명전쟁을 지휘할 때는 마

술의 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의 발밑에 떨어졌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전설의 용사 디뽀느고로의 투쟁정신은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준다.

차이릴 안와르 (Chairil Anwar)의 흉상

인도네시아의 민초 시인 차이릴 안와르 (Chairil Anwar)의 흉상은 디뽀느고로 왕자 동상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차이릴은 45년 세대의 문학 개척자 중 한사람으로 투쟁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시들을 쓴 독립영웅이다. 1922년 메단에서 태어나 1929년 나투랄레 HIS(네덜란드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그의 시는 인도네시아 문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젊은 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시 '나' 가 있다. 또한 이 흉상에 쓰여 있는 시, 'Karawang-Bekasi' 는 이곳에 잠든 영웅들이 뒤따라오는 세대에게 독립투쟁정신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1946년 11월 19일 차이릴은 '글랑강' 이란 시문학 단체를 조직하여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지도하였다.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격정적으로 노래하고 싸운 그는 1949년 4월 28일 27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흉상 옆에 있는 물보라를 일으키는 분수는 그의 '고매한 정신처럼' 하얗게 부서진다.

모나스는 인도네시아 독립의 상징이며 자카르타의 심장이기도 하다. 자카르타에서 가장 유명한 네 개의 동상 – 젊은이의 동상, 항공우주 동상, 슬라맛 다땅 (환영합니다)동상, 농부 동상 등이 모두 이 탑을 향하고 있는 것은 모나스의 그러한 상징적인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도시가 그늘질 무렵 노을을 진하게 마시며 독립 광장을 달려보라. 젊은 도시 자카르타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끼며 진정한 자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곳에서 현실과 이상에서 고뇌하며 새로운 혁명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말한다.

'한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껴안고 누구보다도 자기시대를 정열적으로 사랑한 디뽀느고로 왕자. 한 시대와 더불어 사라지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그의 힘찬 말발굽 소리를 듣고 싶다'고. '디뽀느고로, 당신이 내일의 힘입니다'라고. 시민의 에너지가 가득 찬 독립 광장에 새 시대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주소: Jl. Pelataran Merdeka,
Lapangan Merdeka
개관: 매일 오전 9시 ~ 오후 5시
모나스 입장료: Rp 5.000 (성인), Rp 3.000 (학생), Rp 2.000 (어린이)
전망대 입장료: Rp 10.000 (성인), Rp 5.000 (학생), Rp 2.000 (어린이)

사공경
(0816-190-9976 / (+62 21) 794 1963 /
Email : sagong@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Yayasan Kebudayaan Harapan Antar Bangsa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Jl. Taman Margasatwa No. 3,
Busway SMK 57 Ragunan, Jakarta Selatan

Tel. (+62 21) 7883 9597
Fax. (+62 21) 7883 9598
Email apakabarindonesia@hotmail.com
jalanjalanindonesia@ymail.com (문화탐방)
lovekoin@hotmail.com

연 재

아름다운 생각, 행복한 삶

서 미 숙 / 수필가 gaeunsuh@hanmail.net

문학기행 길에 그 유명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볼 기회가 있었다.
8만장이 넘는 경판에 무려 5천만 자가 넘는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경전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는 뜻이라고 한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이 되는 말이다. 어느덧 한해가 바뀌고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공부' 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까닭에 종교관련 서적이나 심리학, 정신분석학, 심지어 교육학 등의 책에 흥미를 갖게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고 신기하기만 하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배워 온 대로 사고력은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종교에서도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반드시 이를 실천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고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즐겁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답답하다. 마음이 착하다, 마음이 좋다. 나쁘다." 등의 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다. 마음은 시비이해, 대소유무 ,선악귀천 등 온갖 것들이 뒤섞여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구별하가 어렵고 카멜레온처럼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자기에게 이로우면 옳다고 하고 해로우면 그르다고 주장을 하며 웃다가 울다가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마음인 것 같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변덕을 부리는 것일까? 그것은 주인인 몸 때문이다. 주인인 몸을 잘 섬기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변덕을 부린다. 몸은 여러 가지가 모아져 있다고 해서 모으다, 모음, 몸이라 한다. 모음이나 마음은 의미상 같은 뜻이며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따라서 몸이 즐거우면 마음도 즐겁고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괴롭다. 모든 일은 마음이 짓는다고 한다. 그런데 마음이 짓는다고 하는 말도 알고 보면 생각인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실체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한다.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며, 글을 쓰면서도 생각을 한다. 오죽하면 근대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유명한 말을 남겼을까. 이 말은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사람이란 존재적 가치보다 생각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인간은 갈대처럼 나약한 존재지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마음이 괴로울 때 흔히 생각하기조차 싫다고 한다. 그러면서 생각을 멈추거나, 비우며,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은 쉽게 멈출 수 없고, 비울 수도 없으며 돌려지지 않는다. 아니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크게 보면 바른眞 생각, 좋은善 생각, 아름다운 생각美, 지혜로운 생각이 있다.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을 낳고,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실천한다. 아름다운 생각은 아름다운 외모를 만들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된다.

그와는 반대로 나쁜 생각, 추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쁜 행동을 낳기에 그릇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만 이어야 하는 생각, 분별심과 주착심 때문에 스스로 백팔개의 고통을 만들고 괴로워한다.
” 내가 너 보다 아는 것이 많다, 내가 너 보다 부자다, 내가 너 보다 지위가 높다, 내가 너보다는 예쁘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한없이 많은 고통을 받는다. 사람은 일생동안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며 산다. 즉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국문학만 잘 알지 영문학과 수학, 과학, 예술, 정치, 경제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많은 지식인 일수록 자기가 전체를 다 잘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스스로 고통을 창조하는 경우도 보았다.
사람의 생각은 춘하추동, 생로병사처럼 돌고 돌며 변하고 바뀌기 쉽기에 올바른 생각으로 자신을 편하게 내려놓아야 함이다.

나는 오늘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다. 연말인데다 이사가 겹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이 고단한 와중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이사하는 새집은 어떻게 꾸밀까, 어찌하면 해묵은 짐을 버리고 간편하게 이사를 할 수 있을까,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근심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아름다운 생각을 하기도 한다. 제품을 생산하다보면 제품이 떨어져 신제품을 개발하고 다시 생산하기도 하듯이..... 가끔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머리가 터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다.
가수인 백지영의 곡 중에서 ‘총 맞은 것처럼’ 이란 노래가 있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노랫말 중에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픈데 살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란 구절이 너무도 가슴에 와 닿았던 기억이 있다.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한다. 그 생각으로 인해 때론 감사하고, 때론 원망하며 때로는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한다. 세상에 생각이 아닌 것은 없다. 예쁘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밉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며 좋다는 것도 나쁘다는 것도 다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른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지혜로운 생각은 나의 위대한 스승이며, 은인이며, 고마운 친구이다. 좋은 스승과 은인,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일생동안 많은 도움을 받고 행복하지만 나쁜 친구, 나쁜 사람을 만나면 재산도 뺏기고 건강도 잃는 것처럼 생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기 때문이다.
또 다시 2013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생각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행복의 열쇠이다. 새해에는 이 열쇠를 잘 사용해서 나름마다 멋지게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집을 더욱 행복하게 꾸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보면 어떨까?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올해도 멋지고 행복한 꿈! 열어 가시길 기원 합니다.

연재

인도네시아법률해설

부정부패범죄 척결법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아주 부패한 나라 중의 하나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법제도의 근간은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 중에 만들어졌다. 화란 식민 통치 기간 중 만들어진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이 독립한 지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여 지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형사소송은 1981년에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으며, 화란 식민통치 기간 중 만들어진 법규에는 특별히 부정부패범죄(Tindak Pidana Korupsi)를 처벌하는 별도 법규는 없었고 그냥 형법에 포함되어 일반범죄 중에 하나로 구분하여 처벌했다. 1945년 독립 후 성문법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부정부패 처벌법은 1958년 4월에 발표된 당시 중앙 전쟁 사령관이던 육군참모총장의 비상 조치령이다.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정부패범죄 처벌을 제도화한 최초의 특별법령이다. 이어서 1960년에 부정부패를 일소 해보겠다는 당시 집권자 수까르노 대통령의 의지로 부정부패 수사, 기소 및 재판에 관하여 정부의 비상 조치령 1960년 제24호가 발표되고 곧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60년 법률 제1호로 확정이 되었다. 1965년 공산세력의 쿠테타를 진압하고 1967년 국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합헌적인 절차를 밟아 집권한 Orde Baru의 수하르또 정권이 부정부패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1971년 제3호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수하르또 하야 후 1999년에 개혁을 부르짖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부정부패처벌에 관한 법률 1971년 제3호를 폐기하고, 1999년 법률 제31호로 새 부정부패범죄 척결법을 공포하였고 잇따라서 2001년 법률 제20호로 개정하여 현재 부정부패범죄를 대단히 엄한 이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부정부패범죄에 대하여 최고 극형인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고 최소 징역 형량을 규정한 부패척결법의 내용을 보면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느낌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부정부패는 오랜 세월 동안 이미 뿌리를 깊숙이 내렸으며 문화의 일부가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필자가 인도네시아 생활을 처음 시작한 1971년에도 부정부패가 이미 만연되어 있었으며 지금 2013년에도 그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부정부패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부패가 똬리를 틀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기색을 별로 보이지 않고 부정부패가 행해지고 있으며, 처벌을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다. 남의 일에 관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인의 개인주의 사고방식도 부정부패 만연에 부분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부패는 만연해 있으나 근년에 와서 부정부패 범죄를 처리하는 집권자의 의지가 전과 다른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을 공약하고 직선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04년 10월 20일 취임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 정책을 내세운 이래 장관, 중앙은행장, 국회의원, 경찰 장군 및 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척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내렸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년 재선되어 부정부패와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다. 전에는 부정부패 범죄에도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형법

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재판 처리 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형량이 훨씬 무거운 부정부패범죄 처벌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재판도 일반법원이 아니고 부정부패범죄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부정부패척결 특별법원에서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집권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느낄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부정부패 척결 분위기 때문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대법관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많이 줄어 졌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대변화의 시작인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사회적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는 대법원이 외관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 부정부패범죄 척결법은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며, 부정 부패범죄 혐의가 있으면 국적에 관계없이 조사를 받게 됨으로 어려움을 피하기가 힘들다. 부정부패범죄 혐의로 부정부패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기소되어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한국계 기업도 있다. 대표가 6개월 동안 구속 재판을 받았으며,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다행스럽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로 풀려난 사건이 있다. 물론 큰 피해를 봤다. 부정부패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부패척결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되면 사회의 비난 여론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가 힘들어 지고,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여론을 의식하며 재판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배려받기는 어려운 분위기이다. 인도네시아의 비리에 익숙해져 있는 인도네시아 상황에 익숙한 기업일지라도 인도네시아의 변화와 통치자의 부정부패범죄 척결 의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시기이다. 집권층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확고하며 부정부패범죄 척결법은 내국인, 외국인, 공무원, 사기업체 임직원, 자연인, 법인, 단체 등 혐의자의 국적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유죄만 인정되면 누구든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 부정부패 범죄

통상 특별법에는 특별법의 목적물 혹은 대상에 대하여 먼저 정의하고 다른 조항이 뒤 따른다. 그러나 부정부패 처벌법에는 부정부패 처벌법의 목적물인 부정부패범죄에 대하여 "부정부패 범죄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지 않고 제1조에서 부정부패 범죄의 범행주체인 사업체, 공직자 및 자연인을 정의하고 제2조부터 막 바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 부패 척결에는 중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부정부패 범죄 처벌법 제2조를 보면 (i) 자신, 타인 혹은 사업 체의 유익을 위하여 법을 위반한 방법으로 국가의 재정 혹은 경제에 불

이익을 초래한 자는 종신 징역, 최단 4년 징역, 최장 20년 징역 과 벌금 최소 2억 Rupiah, 최고 10억Rupiah 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법이란 실정법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법이 아니고 광의의 법을 의미한다. 법의 범위에 실정법인 실질법(내용법)과 절차법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 및 사회적인 공정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사회규범상 용납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이나 경제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ii) 특수한 상황에서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란 관계법규에 의하여 국가 위기 상태가 선포된 경우,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국가재난 상황이 선포된 경우, 부정부패 범죄를 재범한 경우, 국가가 경제 혹은 통화 위기를 맞은 상황을 의미한다. 형법에 범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있다.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이 되면 범죄에 해당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안 되면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i) 범행주체가 있어야 한다.

(ii) 잘못이 있어야 한다. 법에서는 고의와 고의가 없는 과실 모두 잘 못으로 보며 형량을 달리할 뿐이다.

(iii) 실정법에 위배되어야한다. 윤리나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일지라도 국가에서 제정한 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v) 법규에 금지 혹은 실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반 시(금하는 사항을 범했거나 실행을 요하는 사항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도록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v) 범행이 발생한 때와 장소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 꿈속에서 저지른 범죄 혹은 생각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은 나쁜 생각은 법적으로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죄를 지었다고 규정하는 종교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이나 언행에 죄의식을 느끼는 양심의 기준과 법의 기준은 차이가 많다. 부정부패 범죄 처벌법 제2조의 처벌규정에 근거하여 부정부패 범죄를 정의하면 “부정부패 범죄란 자신 혹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실정법 혹은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 혹은 경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했거나(과거) 부정부패범죄의 결과로 간접적인 불이익을 초래케 할 수 있는(미래) 모든 행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 부정부패 범죄의 형태 및 형량

2.1. 자신, 타인 혹은 사업체의 유익을 위하여 저지른 부정부패범죄

부정부패 범죄 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이 범죄에 관한 조항은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이해가 된다. “예” 를 들면 결산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세무총칙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법 제263조에 의하여 기소될 수도 있고, 부패척결법 제2조에 근거하여 기소될 수도 있다. 세무총칙법으로 기소되면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 형법 제263에 의거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최고 6년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부패 범죄 처벌법 제2조에 근거하여 기소되면 상황에 따라 징역 종신, 징역 최단 4년 혹은 징역 최고 6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2억 Rupiah 혹은 최고 10억 Rupiah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극형인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특별한 상항이란 지진, 화산폭발, 해일, 홍수, 역병 등 자 연재해 발생, 경제 혹은 금융위기 발생, 전쟁발생 등 국가적으로 법규에 정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의미한다.

2.2. 직권, 기회, 직책상의 시설 및 직위를 남용한 범죄

원칙적으로 자연인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는 직위를 맡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정부패범죄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수사관이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직권 남용에 해당되며, 경찰이 도박 현장을 덮치고 도박판의 돈을

슬쩍하면 기회 남용에 해당되며, 시영 버스회사 사장이 시영 버스 보유 버스를 자기 아들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직책상의 시설 남용에 해당되며, 시장이 유흥업소를 금하는 지역에 유흥업소 개설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 직위 남용에 해당된다. 이러한 형태의 부패범죄를 범한 자는 종신 징역, 징역 최단 1년 혹은 징역 최장 20년과/혹은 추가로 벌금 최소 5천만 Rupiah 혹은 최고 10억 Rupiah에 처한다.

2.3. 공직자와 뇌물 수수 혹은 뇌물 수수를 약속한 범죄

적극적인 뇌물 제공, 뇌물 수령 혹은 뇌물 제공을 약속하거나 뇌물을 받기로 약정한 부패범죄이다. 임명직 공무원, 선거직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정부 출연 기관의 임직원,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보수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특정사항을 직무상의 의무와 다르게 처리해달라고 유형의 뇌물 혹은 무형의 뇌물, 예를 들면, 접대, 일자리, 시설 이용(주거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여행, 여러 가지 형태의 편의제공 등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했거나 제공받았거나 제공하고 받기로 약속한 부패범죄를 범한 자는 징역 최단 1년 혹은 최장 5년과/혹은 추가로 벌금 최소 5천만 Rupiah 혹은 최고 2억5천만 Rupiah에 처한다.

2.4. 판사 혹은 변호사와 뇌물 수수 범죄

판사란 소송 심리를 맡고 있는 모든 종류 모든 심급의 법원(지방법원, 행정법원, 종교법원, 상업법원, 부패척결법원, 인권법원, 세무법원, 노동법원, 군사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판사를 의미하며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를 의미한다. 특별히 변호사를 부패척결법에 포함시킨 이유는 실정법상으로 법을 지키는 4대 기관(Penegak Hukum, 경찰, 검찰, 법원 및 변호사) 속에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소송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판사 혹은 변호사에게 유형 혹은 무형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했거나 제공받기로 약속에 동의한 자는 징역 최단 3년 혹은 최장 15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1억5천만 Rupiah 혹은 최고 7억5천만 Rupiah에 처한다. 부정부패 범죄 처벌법의 이 조항은 형법 제210조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나, 부패범죄자를 엄벌하겠다는 의도로 최단 징역 형량을 넣고 최장 형량도 크게 늘려서 부패척결법에 포함을 시켰다.

(다음 호에 계속)

(새해 달라지는 것들)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 ...한글날 다시 공휴일

법무 · 경찰

◇해외 온라인 비자 발급=외국 대학교수, 연구원 등 우수 인재는 재외공관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전자통신망에 접속해 비자를 발급받는 온라인 비자(전자비자)가 도입된다.

◇흉악 · 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된 4개 유형의 범죄자 중 보호관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스토킹 · 암표 등 범칙금 신설=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나 스토킹은 8만원, 암표는 16만원 등이다.

◇보충역, 의경 지원 대상서 제외=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으면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순경 · 간부후보생 상한연령 40세=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순경 공채 시험과목으로 국어 · 사회 · 수학 · 과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패경찰 아웃제=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인사 감찰 경리 등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교 육

◇만 3~4세도 누리과정=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2월부터 저소득층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이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된다.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까지 늘어난다.

농축산어업

◇반려견 등록제 전국 확대=3개월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허가제=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업은 사육 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2014년 2월부터 영업정지 3회,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일으켰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글자로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농어촌 돕는 기업에 자금·정책 지원=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가 시행된다. 사회공헌활동을 3년 이상 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지난해까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당 49만원이 지원됐으나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4년부터 8㎞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

중 시

◇증권사 직불카드=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한다.

◇연결재무제표 공시 확대=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별도재무제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된다.

환 경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9월부터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트라이뷰틸주석(TBT)·노닐페놀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일정 함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호르몬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제=9월부터 시범적으로, 2014년부터 전국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해 병원이나 학교 등에 전파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원격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는 수도권 등에서, 2014년부터 대상 차량과 지역이 확대된다.

◇농기계도 배출가스 규제=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농기계도 출력 범위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

행정안전

◇한글날 공휴일=10월 9일 한글날이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부정신고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말한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원터치 SOS'란 휴대전화를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말없이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지는 시스템이다.

◇고졸자 국가자격시험 확대=고졸자도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도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찰 · 소방 · 교육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사회취약계층이 응시하면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된다.

◇사회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증명 안 낸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 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회계 공무원 재산등록=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 · 감사 · 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에 한정됐었다.

◇새마을금고서도 민원서류=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 작성 때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용 . 노동

◇최저임금 인상=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3개월 미만의 수습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 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연극 · 무용 · 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 · 조명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정퇴직금 지급 확대=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장애 대학생이 방학 등을 이용해 1~2개월간 기업 · 정부 · 공공기관에서 연수 받을 기회를 준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 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225회 문화탐방>

일시 : 2013년 1월 26일(토)
탐방지 : 자카르타 꼬따 (역사ㅣ와양ㅣ미술박물관, 카페바타비아, 또꼬메라 외)
접수 : 0857 108 10495 (SMS) jalanjalanindonesia@ymail.com
문화탐방팀장 박선이ballonjoa@hanmail.net
문의 : (021) 7883 9597
전화로 문의는 가능하지만 전화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인니어 강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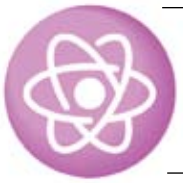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수)
9:00-10:30	인니어 초급		인니어 초급		13:30 - 15:30 앙끌룽 (Guru: Rudi)
9:30-11:00		인니어 초급		인니어 초급	
11:00-12:30	인니어 중급	인니어 초급 (1월 8일 개강)	인니어 중급	인니어 초급 (1월 8일 개강)	
인터넷 접수, 문의 : lovekoin@hotmail.com/apakabarindonesia@hotmail.com/(021)78839597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Jl. Taman Margasatwa No. 3 Busway SMK 57, Ragunan, Jakarta Selatan					

* 바띡 회원모집 | 인니어 1달 (8회): 초급 25만 루피아, 중급 30만 루피아.

제23회 열린강좌
제 목 : 인도네시아 원두로 맛있는 커피만들기
(이론,실습, 시음)
강 사 : 커피전문가 이수경(신세계문화센터 인기강사)
일 시 : 2013년 1월 19일(토) 오전10:00-12:00
장 소 : 한*인니문화연구원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06호
JL.Taman Margasatwa, no.3, BUS WAY SMK 57 Ragunan, Jak.Sel.
연락처 : (021) 7883 9597 / soen-id@hotmail.com
apakabarindonesia@hotmail.com/ Lovekoin@hotmail.com

'늙지 않는 뇌' 비결 10가지

뇌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뇌를 위한 '먹거리 · 운동법 · 생각' 필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인정하면서 정신적인 노화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과학전문 인터넷 언론 라이브 사이언스는 정신의 노화를 막는데 유용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1. 두뇌를 끊임없이 괴롭혀라

크로스워드퍼즐(십자단어풀이)이나 큐브 놀이와 같이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의 부족이 인지력을 떨어트린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나이 들어 정신 건강이 더 좋다. 핵심은 새로운 어떤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같은 조각을 반복해서 맞추는 것보다 모르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2. 두뇌 건강 보충제를 먹지마라

최근 두뇌건강보충제가 복합비타민제와 비슷하게 돈 낭비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나무나 멜라토닌(수면장애치료약) 등의 뇌 관련 약품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성분이 천연재료라고 하더라도 고혈압, 소화불량, 불임, 우울증 등의 잠재적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은행잎으로 만든 약은 플라시보효과(위약효과) 외에 두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몇몇 경우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3. 냉정하라

스트레스는 기억과 관련된 해마나 두뇌의 다른 부위에 다량의 해로운 화학물질이 생기게 함으로써 두뇌에 해를 입힌다. 일부 과학자들은 균형 잡힌 생활이나 요가 등의 이완운동, 사교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여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생선을 먹어라

식단에 생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인지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오메가3와 같은 필수지방산은 뇌기능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것이 입증됐다. 오메가3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복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씨와 생선, 초식동물 등의 음식으로부터 추출한 것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5. 커피를 즐겨라

카페인을 먹는 습관이 두뇌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종단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카페인 만족을 얻으면 인지능력 쇠퇴를 피할 수 있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을 30~6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카페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커피나 차에 함유된 산화방지제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6. 잠을 자라

잠을 자고 꿈을 꾸는 동안 어떤 기억들은 걸러져 버려지고, 어떤 기억은 정리되어 저장된다. 최근

의 한 연구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시냅스에 단백질이 쌓여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인과관계와는 무관할 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나이가 들어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7. 몸을 돌보라

일반적으로 2종 당뇨(Type II diabetes)와 비만, 고혈압과 같이 예방이 가능한 질병들은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 금연과 포화지방을 피하는 등의 생활습관으로 순환계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나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8. 칼로리에 유념하라

과식은 두뇌를 나태하게 만들어 두뇌에 장기적인 손상을 주는 반면 너무 적은 량의 칼로리를 섭취하면 두뇌의 기능을 손상시킨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만성적인 식욕부진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의력 결핍이나 정신착란,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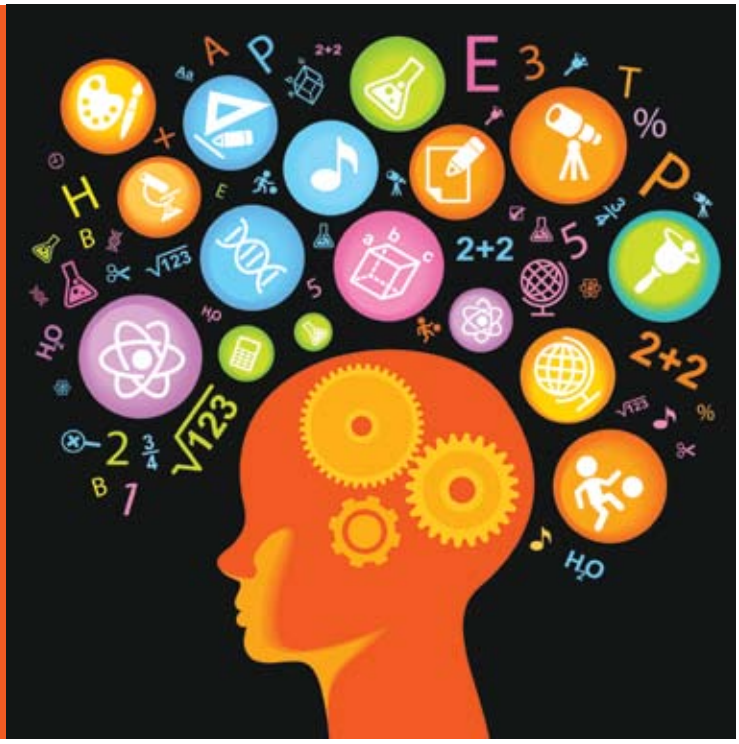
9. 먹고, 또 먹어라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에너지는 두뇌의 민감한 기관에 문제를 야기한다. 적당한 지방과 단백질, 높은 섬유질의 저 혈당식은 설탕과 분질 녹말 같은 고 혈당 음식에 비해 몸에서 훨씬 천천히 분해된다. 내장에서 안정된 속도로 소화되는 것은 뇌에 훨씬 안정된 에너지의 흐름을 제공해 뇌의 기관이 보다 오래 동안 건강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든다.

10. 뭔가를 하라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 두뇌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꼽으라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한다. 심장과 폐는 런닝머신에서 달리기 운동을 할 때 격렬하게 반응하지만 두뇌는 한발 한발 뛸 때마다 조용한 상태에서 더욱 건강해진다.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운동을 하려면 이틀에 한번 적어도 30분 이상의 육체적 활동을 해야 한다.

1. 두뇌를 끊임없이 괴롭혀라
2. 두뇌 건강 보충제를 먹지마라
3. 냉정하라
4. 생선을 먹어라
5. 커피를 즐겨라
6. 잠을 자라
7. 몸을 돌보라
8. 칼로리에 유념하라
9. 먹고, 또 먹어라
10. 뭔가를 하라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정착

재미 한인 차세대 지도자 한류 확산 등에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에서는 재미 한인 차세대 지도자 모임인 '넷칼(Net-KAL · Network of Korean-American Leaders)' 주관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행사가 열렸다. 이곳에 참가한 린다 강 정(39) 도지&콕스 부사장, 레이먼드 리베라(33) 전 미 내무부 공보국장 등 동포 2~3세들은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한국계 2세로 내년 1월 오바마 2기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리베라 전 오바마 후보 유세 담당관은 참석자들에게 "재외선거가 한인사회의 결속이나 모국의 정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열심히 홍보하고 선거 참여도 독려하자"고 제안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소속 차세대 동포들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이 1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데 이바지했다. 90년대 후반 중화권을 시발로 한류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간 데도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접한 동포 차세대들의 역할이 컸다. 가수 싸이와 초특급 매니저 스쿠터 브라운의 계약을 성사시켜 '강남스타일'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간 역할을 한 사람도 재미동포 이규창(34) 씨다.

이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을 높여주는 차세대 동포 리더들이 적지 않다. 한인 차세대 조직도 미국 21개, 일본과 독일 각 7개, 중국과 캐나다 각 6개 등 80개를 헤아린다. 문제는 이 조직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 역량을 결집하면서 모국과 동포사회에 윈-윈 국면을 조성하는가 하는 점이다.

◇모국 초청 행사 "사후관리 프로그램 부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최근 전 세계 720여만 동포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 구축을 10대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차세대 한인의 민족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우려고 재외동포재단 설립 때부터 15년째 매년 10월 각국 차세대 100여 명을 초청해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열었다. 또 청소년 모국 연수와 한국어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인적 네트워크를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에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필요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시스템도 완비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부처에서도 연중 차세대 동포 초청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지도자 연수 사업 가운데 일부는 사후관리가 부실하거나 중복 성격도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실 진단에 따른 치밀한 사업 방향이 수립되지 않아 심지어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모국 초청 일변도로 이뤄지거나 일부 국가에 초청과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프로그램도 차세대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짜놓은 대로 상투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초청사업을 주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주도해 상호교류 프로그램

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국가별, 분야별, 전문가 그룹별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동포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검토해야”
김윤태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을 예로 들어 ‘신(新)정착자(New comers)’ 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투자 기업가 2세들의 경우 조선족 동포 2~3세나 국내의 같은 세대들에 비해 국가적 관심이 소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최대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역량을 잘 결집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차세대 동포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함께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만의 동포사업 전담기구인 행정원 산하 교무(僑務)위원회 등 타국 사례를 연구해 동포청(교민청)을 설립하거나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위원회 권한을 강화, 사실상 동포정책 전담기관을 두어야 효율성도 높이고 사업의 중복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예산과 인력만으로 예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초청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관리, 차세대 동포 사업의 확대, 강화를 위해 예산과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동포 결집 방안의 하나로 유영일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은 ‘멘토링 제도’를 제안했다.

IAKL은 지난해 2월부터 한인 변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회원들도 적극 호응해 회원 수가 국내 500명을 포함, 1천500명에 이른다. 총회 참석자 수는 2010년 250명에서 지난해 서울총회에 300명으로 늘어났고, 올 9월 로스앤젤레스 총회에는 400여 명이 모였다.

IAKL은 LA옴니호텔에서 열린 올해 총회 기간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은 해외 로스쿨의 국내외 예비 법조인을 대거 초청했다. 지적재산권, 회사법, 금융법, 국제거래법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멘토링 세션을 열자 수많은 영 리더들이 다수 참석해 인기가 높았다는 것이다.

LA의 동포 기업가 김준경(64) LG-LIVART 사장은 지난해부터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나라를 두루 다니고 있다. 차세대 한인 무역인을 꿈꾸면서도 실전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동포 2~3세를 만나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경영 이론과 오랜 사업 경험을 들려주며 창업 의지를 북돋우는 등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차세대 네트워킹, 한민족 울타리 뛰어넘어야”
차세대의 네트워킹은 크게 거주국 내의 차세대 간 교류, 다른 국가 차세대와의 교류, 거주국과 한국 사회단체와의 교류로 나뉜다. 국내의 동포 차세대 커뮤니티는 외연을 넓히는 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들은 거주국에서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력을 늘리기 위한 당면 과제는 시민권을 얻거나 참정권을 획득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타민족과 공존을 지향하고 서로 돕는 모습으로 커뮤니티의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주문했다. 김철민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이사는 “재일동포 변호사의 특수성을 살려 한일 간 법조인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세계한인변호사협회에 가입해 동포 차세대 법조인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경복 미주 한인커뮤니티재단 사무총장은 “화합과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키우려면 다른 민족과도 활발히 교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 총장은 “재미동포 사회에서 코리안-아메리칸의 존재는 미약하지만 아시안-아메리칸으로 결집하면 정치력은 커진다”며 “차세대 네트워킹이 한민족의 울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연재> 독도를 알자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외교통상부-

우리 땅 독도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36호 인 독도는 60여종의 식물 129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1.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2.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로부터 87.4km)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는 "우산(독도), 무릉(울릉도)…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2013년도 제 30회
한국어능력시험

세계 속 한국어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국내로의 유학과 취업 등에 필요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 · 평가하는 2013년도(제30회)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의 인도네시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험일시
- 2013년 4월 21일(일) 초 · 고급 : 09:00~12:30
  중급 : 14:00~17:30

시험장소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응시대상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및 외국의 학교 졸업(재학)자

시험구분
- 일반한국어 (Standard TOPIK)
  한국문화 이해 및 유학 등 학술적 성격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측정 · 평가
  ※ 12년 전과정자는 모든 대학에 제출 필수
  ※ 고려대학교 한국어 능력시험 대체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3년 1월 9일(수) ~ 1월 22일(화) 09:00~15:3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1월 22일 도착한 서류에 한함)**접수**
  Jl. Bina Marga No. 24 Kel. Ceger Jakarta Timur
  원서접수 시 사진은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3X4)을 첨부
- 접수장소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담당 : 정재선 | Tel. 844-4958)

응시수수료
- 초 · 중급 | Rp.150,000
- 고급 | Rp.250,000

시험시간

응시등급		제1교시	제2교시	비고
		어휘 · 문법 / 쓰기	듣기 / 읽기	
일반한국어 (S-TOPIK)	초급	09:00~10:30 (90분)	11:00~12:30 (90분)	오전
	중급	14:00~15:30 (90분)	16:00~17:30 (90분)	오후
	고급	09:00~10:30 (90분)	11:00~12:30 (90분)	오전

합격자 발표 예정
- 2013년 5월 30일(목)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해당 영역별 취득 점수, 총점 및 평균 점수 통지)
  ※ 위 사항은 인터넷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 수험표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배부합니다.
- 시험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기재한 시행지역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용 컴퓨터용 사인펜은 평가원에서 지급합니다.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고등부 교무실 및 행정실
  (Tel. 844-4958 | 정재선(ext.153), 이 미(ext.307))
-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학교 홈페이지(http://jik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 국립국제교육원(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NIIED 국립국제교육원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아름다운 공동체 인도네시아 한인회

2012년 한인회 임원 찬조금

번 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납입 연도
1	한인회 회장	승 은 호	KORINDO GROUP	2012
2	한인회 수석 부회장	신 기 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2
3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2
4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	송 창 근	KMK GROUP	2012
5	한인회 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2
6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CAMTEX	2012
7	한인회 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2
8	한인회 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2
9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ROYAL SUMATRA	2012
10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INWHA INDONESIA	2012
11	한인회 부회장 겸 감사	조 용 우	외한은행	2012
12	한인회 부회장 겸 감사	최 상 학	우리은행	2012
13	상공회의소 부회장	곽 삼 섭	PT. BOSAENG JAYA	2012
14	상공회의소 부회장	권 희 정	PT. SAMICK INDONESIA	2012
15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동 호	PT. KRAKATAU POSCO	2012
16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두 련	PT. MIWON	2012
17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송 정	UNICON INDO MESIN	2012
18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우 진	PT. SAMINDO ELECTRONICS	2012
19	상공회의소 부회장	박 병 용	PT. PATRA SK	2012
20	상공회의소 부회장	배 형 석	PT. NANTOY RESOURCES	11-12
21	상공회의소 부회장	손 용	PT. CJ INDONESIA	2012
22	상공회의소 부회장	안 광 진	PT. ERNST&YOUNG INDONESIA	2012
23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세 호	DUMI GLOBAL	2012
24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완 주	PAN BROTHERS TBK	2012
25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창 훈	PT. SAMTAN CO., LTD.	2012
26	상공회의소 부회장	장 윤 수	PT. HANSARAM SAKTI	2012
27	상공회의소 부회장	최 병 우	ANEKA PANEL INDONESIA	2012
28	상공회의소 부회장	최 창 식	하나은행	2012
29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김 육 찬	GARUDA TWIN JAYA	2012
30	상공회의소 사무차장	이 주 한	ROYAL SUMATRA	11-12
31	자문 위원	김 영 만	KIPCO CO. LTD	2012
32	자문 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2
33	자문 위원	박 헌 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2
34	자문 위원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11-12
35	자문 위원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2012
36	자문 위원	이 진 호	PT. JINYOUNG	2012
37	자문 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2
38	이 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2
39	이 사	강 호 성	PT. ANUGRAH CIPTA MOULD	2012
40	이 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2
41	이 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2
42	이 사	김 경 국	NES	2012
43	이 사	김 광 현	ASOKA	2012

번 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납입 연도
44	이 사	김 달 수	KIDECO JAYA AGUNG	10~12
45	이 사	김 문 호	PT. DADA INDONESIA	2012
46	이 사	김 병 철	PT. MISUNG INDONESIA	2012
47	이 사	김 상 태	SMS GROUP	2012
48	이 사	김 성 국	PT. PERTA SAMTAN GAS	2012
49	이 사	김 영 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2
50	이 사	김 원 관	PT. GF INDONESIA	2012
51	이 사	김 종 헌	PT. KOIN BUMI	2012
52	이 사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2
53	이 사	김 혁 중	STX PAN OCEAN	2011
54	이 사	김 현 재	TOUR 153	11-12
55	이 사	남 상 달	PT. PARKLAND INDONESIA	2012
56	이 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2
57	이 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2
58	이 사	박 영 수	PT. BENUA ASIA VISION	10~12
59	이 사	서 영 율	PT. PRATAMA ABADI	2012
60	이 사	석 웅 치	PT. DAYUP INDO	2012
61	이 사	송 판 원	PT. KORYEPOLIMER	2012
62	이 사	신 유 희	PT. BINTANG 2 MACHINE JAYA	2011
63	이 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2
64	이 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2
65	이 사	안 홍 제	PT. KOLON INA	2012
66	이 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2
67	이 사	유 주 완	PT. FEEL BUY INDONESIA	2012
68	이 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2
69	이 사	이 상 일	PT. U I B	2012
70	이 사	이 석 태	PT. U F U	2012
71	이 사	이 승 민	Y S M & PARTNERS	2012
72	이 사	이 종 억	K A L	2012
73	이 사	이 종 환	PT. BLESSINDO BANGUN SEJATERAH	2011
74	이 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2
75	이 사	이 지 완	PT. JINYOUNG	2012
76	이 사	이 철 훈	PT. INDOBOX UTAMA	2012
77	이 사	장 주 현	INKO PRIMA UTAMA JAYA	2012
78	이 사	전 민 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2
79	이 사	정 주 성	PT. DEASUNG HI-TECH	2012
80	이 사	조 윤 행	PT. WIKASA	2011
81	이 사	조 호 신	SONERGY	2012
82	이 사	지 동 주	INTEC MAS ENGINEERING	11-12
83	이 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INONESIA	2012
84	이 사	최 광 수	PT. BIG STAR	2012
85	이 사	하 연 수	PT. SEOLIN NIAGATAMA	2012
86	이 사	현 정 규	MEKAR SAMMI JAYA	2012
87	이 사	홍 기 호	PT. AURORA INT'L CO.	2012
88	이 사	홍 종 서	PT. DONGEN CHEMICAL	2012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음미하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둥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땀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0 5979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65 3077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죠지언 퍼니쳐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붕냐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人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最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번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무항생제, 무화학약품, 순수곡물사료
닭을 행복하게 하는 양계법
최고의 닭고기 CharmChick

Charm CHICK
Nature's Choice

같아보여도 속부터 겉까지 다른 Quality
참칙은 참닭, 진짜닭입니다

Sucofindo의 무대장균, 무살모넬라 인증
인니 농축산부의 무항생제 인증
자카르타 주정부의 1등급 품질인증

판매처 무궁화, K-마트, 뉴서울슈퍼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Gojumong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Sudirman)	9127	2262
가효(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뽄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횟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라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둥)	(022) 203 1626
코리안우스(횟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프라임투어	(한국어)0857 1009 3479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쉼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뽄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뽄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회장 한상재)0811188612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차문화원(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한상재) (0811 188 612)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5 9717 450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날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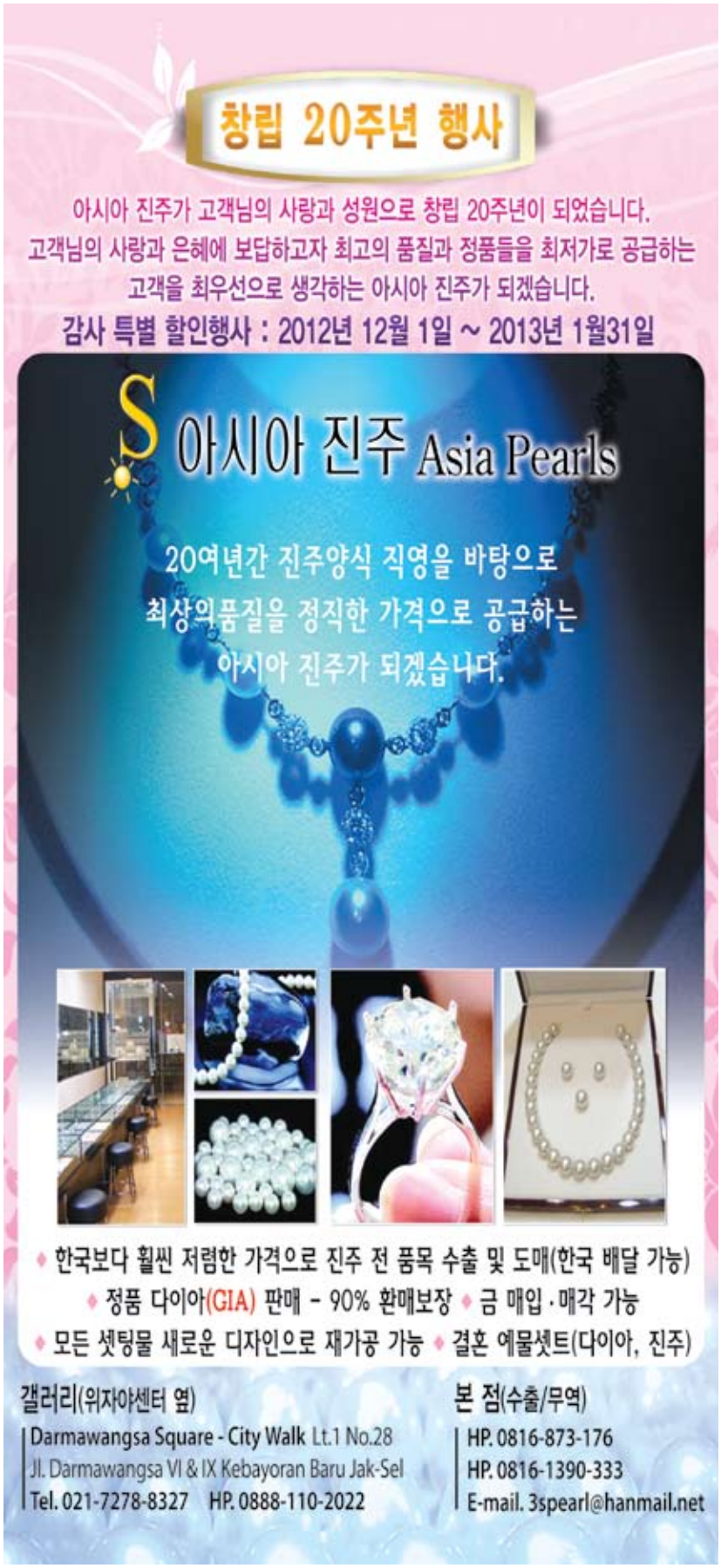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KORINDO P1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www. kideco.com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연기가 되어 다다릅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뚝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